朝鮮日報
夕刊 十四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軍縮會議서 脫退를 日本代表部遂言明

和協示唆拒絶코 脫退는 自由라는

英國側의 激越한 放言으로 決意

決裂必至情勢를 本國에 報告
十五日로써 會議脫退를 決定

【倫敦十三日發電通至急報】 日本代表部는 十三日深夜 外國記者團에 如左히 言明하엿다

日本代表는 近近 軍縮會議를 脫退할것이다

【倫敦十四日電通特派員發至急報】 日本代表部는 十三日 午後 六時부터 八時까지의 日英會談에서 이든英外相及 몬셀英海相에 依然 頑强한 態度를 堅持하고 無期休會提示 其他 會議의 圓滿終結을 圖하려하는 日本側의 示唆를 拒絶하엿슬뿐더러 潛水艦使用制限 協定과如한 附隨的問題審議까지도 拒絶하고 『會議脫退는 自由』 라고 極히 激烈한 放言을 하엿슴으로 次回委員會(一日延期하야 十五日開會)에서 日本의 共通最大限主張을 拒否하야 會議가 決裂될것은 거이 必至의 情勢인데 日本代表部는 十三日夜 軍縮會議 脫退覺悟를 드듸어 公言하엿다

永野全權

【倫敦十三日午後十時十八分發同盟至急報】 永野 永井兩全權은 十三日 午後六時十分부터 海軍省에서 英國代表이든外相 海相몬셀卿 채드필드軍令部長 크레기參事官과 會見하고 審議二時間에 亘하야 第一委員會의 議事手續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는데 協議한結果 日本政府의 共通最大限案은 成立될 希望이 업슴으로 日本全權團은 事實上 會議를 脫退할수밧게업시되엿다 그러나 英國代表部에서는 會議를 圓滿히 終了하려는 見地에서 共通最大限案을 表決에 附하지안는데 同意하엿스나 英國代表部와 協議한 日本全權部로서는 繼續하야 會議에 殘留하드라도 意義업다는것이 判明되엿슴으로 英國代表와의 會見後 十三日夜에 이르러 書翰으로써 英國代表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正式通告하기로決定하엿다

永野全權은 十五日 午後三時부터 第一委員會에 出席하야 日本政府의 提案에 說明을 할터인데 同案에 對한 說明을行한後 採決에 附하지안코 散會한대로 爾後에는 會議에 出席하지안코 英米佛伊四國代表間에서 討議를 續行하드라도 討議에는 參加할수업다

【倫敦十三日電通特派員發】 日本代表部는 十三日夜 會議決裂必至의 情勢를 本國政府에 報告하고 善後措置에 關하야 妥協하엿다

現情勢와 米政府側見解

軍縮會議決裂後는 太平洋防備를强化

日本의海軍力增加要求는應諾할수업다

英米協力必要는切迫

【華盛頓十三日電話】 米國政府側에서는 倫敦軍縮會議決裂後의情勢에 關하야 左와如한見解를說明하엿다

倫敦會議는 벌서 決裂必至의 情勢로 되엿는데 米國으로서는 決裂의原因이 米國에 잇지안코 日本에 잇는데 多少 安心한다 但米國으로서는 決裂後라도 何等의 方法에 依하야 海軍의安定이持續되기를 切望하여마지안는다 日本의 極東에잇서서의 行動은現在의 海軍力을 背景으로하야 効을收得하고잇다 이事實로보아 米國으로서는日本의 均等要求에 讓步할수는업다 日本의海軍縮의 提案은 即 日本의 海軍力 增加要求案에 不外하는것은 一般이모도 認識하고잇는事實이다 그리고米國海軍側에서도 軍縮會議의決裂에依하야 米國은必然的으로 알류-시안群島의 防備하야이及比島의要塞强化를비롯하야 英米協力促進必要에 切迫되게될것이다 라는意見을가지고잇다

天皇、皇后兩陛下

駐滿海軍部隊御慰問

【東京電話電通】 天皇、皇后兩陛下께압서는 酷寒의 北滿과 支那海에 活躍하는 第三艦隊와 旅順要港部及 駐滿海軍部隊의 軍長과 特兵을 御慰問하압시사 爲하사 十四日 平田侍從武官을 同地에 御差遣하압실旨의 御沙汰가 계시압섯다 同武官은 來月十五日頃 東京發 聖旨及 令旨를 奉하고 同地에 赴하야 酒類、御紋章付煙草等의 御下賜品을 傳達、約一個月에 亘하야 御慰問의 重任을 實行이다

日英會談經過內容

【倫敦十三日發電通】 日英會談은 十三日午後六時부터 英國外務省에서 열릴터인데 日本側으로부터 永野、永井兩全權、溝田通譯 英國側으로부터 이든外相 몬셀海相 그레기外務參事官이出席하야 爲先永野全權으로부터 政府訓令의 趣旨에基하야
一、共通最大限에는 何等變更을 認定치안는다
一、그러나 日本案에 對하야理解를 充分케하기爲하야 案을 一層廣汎하고깁게說明하겟다
一、日本案이 四個國의承認을 엇지못할境遇에도 이에 關聯치안코 다른個別的問題에對하야 協定을 作成하기爲하야 討議하는것은 無妨하다
一、技術問題로 意見不一致를生할 境遇에도 會議는 될수잇는대로 友好的으로 例하면 休會와가튼 形式으로 閉會하기로바란다
는 意見을 開陳한데 對하야 英國側은 共通最大限主張에는 贊成할수업다고 거듭言明하엿다 但 이것을 表決에附하야 떠들지는안코單純히 相互意見을 陳述하는것으로 正式決別하기를 바란다고 意向을 告한後 다시 日本軍縮案의 補足說明方針에對하야 質問을 發하야 그中에 進攻的艦艇制限과 如何實的問題가 包含되어잇는點에서 英國의 希望인 實的軍縮協議를 繼續할 可能性을探索하려하엿스나 日本側은 用意周到하게 實的制限은 恒常量的 制限을 前提로 하는것으로 量的制限을 拒否하는以上 이와 關聯잇는實的問題의 協議는 無益하다 다른純粹獨立的問題(潛水艦使用制限問題와 永久化)와如한 討議可能事項은 此를 保留하다 고 答하엿슴으로 玆에 俄然英國代表는 態度를 一變하야

우리로서는 會議招請國으로行할 모든것은 다하엿슴으로 日本代表의 方針이 依然 如上과如하다고하면 自由에맛길수밧게업다 英國은 日本의主張을 只今大體로 聽取한後 殘餘의 만흔問題를 그대로 두고 即時 無期休會로 드러가는것은 受諾할수업슬뿐만 아니라 다른 一般問題를 除外하고 潛水艦使用制限等 諸問題를 끄집어 내이는것은 諒解하기 困難하다

고 述하엿다 玆에 永野全權은 貴國의 方針이 그러라고 하면 本代表等은 會議를 不得己 脫退하게 될것인바 이것은 極히 遺憾으로 녁이는 바이다 라고 述하야 日本代表의 脫退가 必至의 形勢로 되엿다 兩國代表는 다음에 會議議事手續을 協議하고 英國側은 日本의 右態度를 米、佛、伊에 傳達할 必要가 잇다고 하고 또日本은 다음會議에서 說明할 發表할 準備로 東京政府와 妥協할 必要가잇다하야 一日延期하야 十五日午後三時부터 아마 最終委員會를 開하기를 約하고 同八時會談을 終了하엿다

俄然態度豹變은 英外交常套手段

決裂後英米提携益强化

【倫敦十四日電通特派員至急報】 英國이 最後에 다다라 俄然强硬態度를 取하게된 事實은 勿論英外交의 常套手段으로 맛치日本의聯盟脫退直前 쥬네브日中紛爭委員會에서 사람도 한사람인 이든氏가 當時聯盟代表로 示現한豹變과 全然 그軌道를 가티하는것으로 日本代表部에서는 자못 警戒하고잇다 即英國으로서는 現下의 歐洲情勢에잇서 米日의 支持를 絶對로 必要하는立場에 잇는바 이러한 關係에서 米國의意向과 迎合하엿기때문에 日本에對하야 最後的態度를 速히 表示하라는 米國의 主張을 容認하야 如斯한態度를 取한것은 疑心업다 고하다 따라 會議決裂後 英米提携는 一層拍車를加할 情勢로되엿다

저便이잘못!

永野軍縮全權談

【倫敦十四日電通特派員發】 永野全權은 自邸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互相 얼굴을 붉키지안코 헤여지는것은 누구나 希望하는바이나 저便에서 점잔케나오면 여기서도 점잔케하겟다 그러나 事態가 이와가티되는以上 國民은 마음을가다듬어 激動하는態度를 보히지안는것이 必要하다

社會大衆黨 第四回全國大會開催

【東京電話電通】 社會大衆黨에서는 休會後 議會에 激烈할 對策과 解散後의 總選擧에 備하기 爲하야 來十八日午前十時부터 協調會館에 第四回全國大會를 開하기로되엿다

話題點訥

議會의解散

◇ 第六十八議會는 一月二十一日 再開劈頭에 解散하리라 傳한다。 政務大臣의 施政演說後 政友會가 總括的 不信任案을 提出하기 곳 解散하리라고도 하며、不信任案을 上呈한 後 審議에 入하야 政友會의 不信任案 提出의 理由를 듯고 解散하리라고도 하나 如何間 今次 議會가 解散되리라는것만은 거이 確定的 事實이다。 그러면 解散은 어째서 어떤 理由로 하며、解散하면 그 結果는 어떠한가。

◇ 議會의 解散은 政府가 議會의 意思를 國民의 意思로 認定하지 안흘 境遇에 斷行하다。 그러니만치 解散할수 잇는 議院은 人民의 選擧에 依하는 衆議院에 限한다。 萬一 政府가 議會의 意思를 正當한 國民의 意思라 볼때에는 設使 議會가 政府彈劾案을 提出하고 審議하고 可決하드래도 服從하야 總辭職까지라도 한다。 그러나 大槪의 境遇에 잇서서는 議會에서 不信任案을 提出할 때에는 國民의 意思로 認定치 안키때문에 解散을 命한다。 特히 現在와가티 野黨(政友會)이 與黨(民政)의 數爻보다 만흘 때엔 表決에 附할 境遇에 政府與黨이 敗할것이 分明하므로 解散을 命한다。 이러하야 解散은 結局 議會에서 與黨이 表決해도 勝算이 업슬 境遇에 斷行한다。

◇ 議會가 解散되면 從來의 衆議院議員은 그資格을 喪失한다 同時에 貴族院도 停止된다。 그리고 解散으로부터 五個月以內에 總選擧를 斷行하야 國民의 意思를 뭇는다。 萬一 今次議會가 一月二十一日에 解散된다면 六月二十一日內에 總選擧를 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今次의 議會는 通常議會요 豫算議會니만치 여러法律案과 明年度豫算案이 提出될것이 成立되지 못하고 水泡에 歸하고 만다。 그러나 國家의 豫算은 하로도 업스면 안되므로 法律로써 政府에 權限을 주어 前年度豫算範圍內에서 再編成을하야 實行하고 그것을 다음 議會에서 承諾맛도록 하얏다。 即 今次議會가 解散되면 今期議會에 提出하라든 米穀自治管理案等은 流産되고 말고 明年度豫算(昭和十一年度)은 不成立되나 今年度豫算(昭和十年度)을 踏襲하야 即新豫算은 二億八千八百萬圓을 다시 適當하게 編成하야 施行한다。 그러나 緊急한것은 政府의 責任支出로써 하고 後日 議會의 協贊을 바드면 그만이므로 事實上 新事業을 거이다 할수도잇다。

廣東의大學生團 警官隊와衝突

抗日大會開催코 廣東政府打倒를絶叫

警官發砲로死傷五十名

【廣東十三日發同盟】 中山大學生을中心으로한 約四千名의 學生團은 十三日午前十時頃 日本帝國主義打倒의 示威運動을 敢行하야 當初부터 不穩한 空氣가漲溢되엿드니 到處에서 保安隊와衝突하야 그中一千名은 警戒線을 突破하고 廣東市의西端國民大學에 殺到하야 同校學生을糾合하여가지고 午後一時부터抗日大會를 開催하고 帝國主義의走狗廣東政府打倒를 絶叫하게되엿다 形勢惡化되매 保安隊五十名은 學生團에 向하야 小銃을發射하야 會場은 忽然間에 阿鼻叫喚의 巷으로 化하야 目下判明된死者는 十四、負傷者는三十六名이다 死傷者의 大部分은中山大學의 學生이다

中山大學校長以下

【廣東十四日發同盟】 中山大學校長鄒魯氏및同校敎職員은 學生運動의 責任을지고 十三日夜連袂辭表를提出하얏다

【廣東十三日發同盟】 廣東市政府는 學生示威運動의 背後에多數의 共産黨分子가 介在하고잇슴을認하고 軍警을 派遣하야 市內各校를 封鎖하야 不穩分子를檢擧하는同時에 市中到處에憲兵隊를 巡邏케하고잇서 廣東市內는 宛然戒嚴狀態에잇다

伊大使佛首相에陳述

制裁强化하여도 聯盟脫退안는다

【巴里十三日發電通】 聯盟理事會開會를 一週日後에 압두고 伊에紛爭을 中心한 諸國의 態度와 推移가 자못 注目되여잇는 此際駐佛 伊太利大使체르티氏는 十日 午前 佛國外務省에 라발首相을訪問하고 一週前에 무솔리니首相이 駐伊佛國大使데샹브랑氏를 通하야 라발首相에게傳達한 聯盟의 制裁强化境遇에處할 伊太利方針을 正式으로 再確認하고 左와如히 重要한言質을 與하엿다

一、伊太利는 英國을 武力攻擊할意思가업다
一、現在以上으로 聯盟의 對伊制裁가 强化될 境遇라 할지라도 伊太利는 聯盟을 脫退하지안흘것이다

蘇聯、日獨目標의 大軍事豫算決議

總額百四十億留로昨年倍額

執行委員會에서 贊同

【莫斯科十三日發電通】 去十日蘇聯中央執行委員會의 開會에當하야 人民委員會議長모로토프氏가 「日本과 獨逸이 蘇聯에 威脅을주고잇다」고말하야 今年度蘇聯軍事豫算의 增額을 要求한 演說을한데對하야 執行委員會의 全委員은 모도이에 拍手를 보내여 모로토프議長의 提議에 贊意를表하엿다 同委員會는 드디여 十三日會議에서 一九三六年度蘇聯軍事豫算總額을 百四十億留로 하자고 決議하얏다 右決議는 近近 滿場一致로 全委員會를 通過할 模樣이다 따라 昨年度軍事豫算總額은 六十五億留이엿슴으로 倍以上의 大增額을 한셈이다

四國會議續行

日本不參加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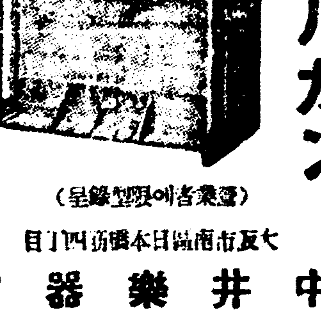
【倫敦十三日發電通】 四國會議는 日本이不參加한대로 續行하기로 決定하고 그重要議題는 이미 英國專門家의손에서 準備를 完了하고 米佛伊代表에 內示한것이 判明되엿다 그要旨는 軍艦艦種限口徑制限에잇고日本의態度에 顧하기爲하야 特別한條項을附하여잇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來十七日午後六時로 라리具樂部員一同을 官邸에招待하야晩餐宴을開催
▲金顯喆氏(實業家) 十三日午後六時 玉川洞自宅에서外艱
▲金東進氏(本社東京支局長) 歸社中이든바十四日朝 京城驛發任地에

八面錄

◇京城府區域擴張原案이 決定되야 四月一日부터는 名稱만이라도 大京城이實現될모양.
◇四十萬의 人口가 六十萬으로 五割이늘고 二方里의面積八方里로 四倍가된다고。
◇「現代文化는 集中에서」라는 角度로본다하면 都市를 크게하는것도 必要할는지 모르나。
◇新京城府民의 負擔이 얼마나 늘어갈는지、그들의 幸福增進比率을 무엇으로標準할는지。
◇또한편으로 都市만자라고 農村은微弱하여진다하면 頭腦만 커지는 畸形人間이안될가。
◇都市와農村의調和는 農과商의 關係와가타서 社會調整上至大한關係가잇슴을 알으랴。

大阪著名問屋案內
ナカ井オルガン
絶對的優秀를自信!!
各地에서熱狂的歡迎!!

(營業者에限定錄呈)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戎五一二三番

シレオギター・NM・口琴 軍隊ラッパ・ハーモニカ 製造卸

全鮮에서 놉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ゼスター
高級萬年筆을卸廉價提供
大阪市北區高垣通四丁目
澤井商會製作部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一六四番
(新版カタログ送呈)

獵銃과 空氣銃
大阪에서第一信用잇는
株式會社 西村銃砲店
大阪市東區內本町二丁目 電話東一四六〇
カタログ進呈郵券二錢要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綿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綾、朱子、人絹新柄小賣屋樂客에게는親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町東詰 大阪商品第一三三號
庄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二三八三三番
(商報進呈) 見本은實費五十錢(切手)

ハーモニカ
(蝶印高級)
蝶々バンド
ピックアップ
川口蝶超特選
發賣元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ノ六
吉川樂器店 電話新町三二九四
全國各樂器店及百貨店에서販賣함

世界で一番良い
萬力作業服

生地見本及カタログ送呈
大阪市梅田新道
太平商會

[illegible]
商報進呈
福
福住商店
大阪市西區新町通四丁目十三
電話新町四六五六

少한資本으로
고무活字
營業에고무印名刺을組版하야即賣可能
初步者라도 容易히 장사가된다
到處에서 實行 大大好評多大
고무活字及各種고무印
製造元 吉川商店
大阪市南區瓦屋町六八
電話南二〇九番 振替大阪五九一
(商報進呈)

食料紙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果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浪速區川西町一ノ二
西本商店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고초가루)
新興 番椒粉
月美人印
本案內廣告一手特別扱
大阪西區本田一番通壹
滿鮮信報社

포리도-루레코-드
本月부터 大亂賣
只今大流行하는 鮮于一扇吹込한
一圓五十錢盤을 ◎一金一圓也
其外에도各種具備
一圓二十錢盤을 ●一金八十錢也
一圓盤을 ●一金七十錢也
正月新譜 多數具備
二月新譜도 多數具備
京城鍾路二丁目 鮮一樂器店 電光五七七
京城南大門通り 明時堂蓄音器部 電本二四四四
에限함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番
內科チストマ 토질 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國産 カッピー
크림
카피크림

爽快한바른 科學的美肌作用!
藝術的香氣의馥郁!
카피크림이야말로 美의殿堂에 關門을여는 唯一한열쇠!!
콜드 大形 小形
바니싱 大形 小形
良品은빗난다
豐香園製品
本舖 東京牛込 田端豐香園

神社不參拜問題로 當局最後態度表明
河野平南內務部長이 聲明書를發表
神社參拜를 斷乎히 强調

평양의 숭실전문학교(崇專)를비롯하여 예수교장로파(長老派)의 숭실중학교(崇中) 숭의녀학(崇義)과 평남순안(順安)에 잇는안식파(安息派)의 의명학교(義明)등의 세학교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는 신교상(信敎上) 배치되는것이라고 거절하여오든 문제는 작년십일월중 평남도내공사립학교장 회의때에 일즉우체회하자 평남도당국으로서는 무안(武安)지사가 극히 강경한태도로 학교 교육자와 학교학생생도 아동은 당연히 신사에참배할것이라고 학교당국에 엄명하엿슴에 전긔 세학교 교장은 이에복종하는 태도를 취하고동시에 다수교도까지 역시 신사참배를 불가라는 태도를 취하여 문제는 어떠케 해결될것인가 극히주목되는가운데 오늘까지 미루어 오든이엇는데 일전 평남도지사 이하학무과장등 도간부가 상경하여 총독부 당국과 협의하고 신사일 평남도하야(河野)내무부장의 담(談)으로 문제의 전말과 당국의견해를발표하야이문제에관한 최후적 태도를표명하엿는데 그내용인즉 신사참배는 종교와는별개문제로 일본국민도덕의 대본이니 국가가 국민교육상 필요를인정하고 제정한법령에 의하야 신사참배를함이 당연하고 이에복종하는태도를취함은 결코 허할수업다는것이다、결과에잇서서 전긔세학교당국에서 과연어떤태도를 취할런지 주목되는바인데 총독부당국으로서는 선교사측에서 신사참배거절을 리유로 선교방침에 배치된다고 학교를 폐쇄한다던가하는일은 법규상 불가능하리라고보고잇다

河野平南 內務部長談

前略、大抵神社는 우리皇室의祖先及國家에 功勞잇는사람들을奉祀하야 國民으로하야금 崇敬의정성을이르켜 길이그功績을 敬仰케하기爲한 공공한 設備로서宗敎와는 그觀念을 달리하는것입니다。卽神社制度는 오랜옛날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우리國體의 主要한 本質이되는 國家의制度로 宗敎와는 全然달으게存在하야온것으로서 神社에 參拜하는것은 우리國民道德의 大本인愛國心과 忠誠心을 나타내는것입니다。

그런데 學校는 그公立이고私立임을 不問하고 또그經營이宗敎團體에依하야 行해지고 안해짐을不拘하고 오로지國民들性格을涵養함으로써 그根本義를 삼는것입니다。

그런故로 그러케日本國民을 養成할重大한 使命을가지고잇는敎育者들이 敎育上神社參拜를行하지안코면 아니될것은 넘어도當然한일입니다。學校長또는敎員이宣敎師의業務하고잇기때문에 學校敎育과宗敎와를混同하야 國家가國民敎育上의 必要로부터定한法令制度에 對하야理解를缺하고、敎育上의 命令에反하야 神社參拜를 行하지안는것과갓흔것은決코許할수업는바입니다。(中略)

今回道當局이長老派系、安息派系學校及學校長等에 對하야 神社參拜를 要求한것은 全혀敎育上의見地로부터로서 行政廳이、基督敎信徒一般에對하야 神社에對하야 理解할새도업시 只今곳神社參拜를 하라고하는것이아닙니다 敎育行政의 立場에서 國民敎育을 擔當하고잇는 學校長諸教學校에對하야 이것을 要求하고잇는것입니다。北長老派信者間에、깃딱하면 道當局이 宗敎또는個人의 信仰生活에 干涉을加하는것이아닌가하는、誤解를품고잇는者가잇는것가려 뵈이는데、이것은 憲法의保障하는것과가티、信敎의自由는 明白히 이것을認定하는것으로서、行政廳이 이에서도、各種의宗敎가더욱 發展하야가서 社會民心의 敎化에 힘쓰기를 바라는것이故로 道敎師其他宗敎關係者로우려 國家敎育에關與하는사람들은 一方으로잇서서우리敎育制度의 本旨를 諒解하고、神社의 本義를 밝게 하야 스사로 神社參拜를함은 勿論生徒兒童을 神社에參拜식혀서 國民資質의 向上完成을期하는同時에他方本問題에對하야 關心을가지고잇는 敎育關係者와 緊密하고公正한 連絡을 保하야、一般信者의 어떤사람들이품고잇는것 가리보이는 宗敎干涉이라고 하는것가튼不安을 除去하야서 宗敎의 永遠의 健全한 進展을圖謀하여야할것입니다(中略)

나는 이것을學校의 關係者及生徒兒童또 父兄들이、今回의問題는全혀敎育行政上의問題로서道當局에잇서서는宗敎及個人信仰生活에 對하야干涉하려고 하는意思는毫末도 가지고 잇지아니한다는것을알고、適히神社參拜의意義를諒解하는同時에 各各그本務에精勵하야 遺憾업기를期하도록 바라는바입니다。

從來의持論을 宣明햇슬뿐
大野學務課長談

신사참배문제에 관한 평남내무부장의 발표에대하야 총독부대야(大野)학무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평남내무부장의 발표는 총독부당국과도 충분한 협의를하고 발표한것으로 종래의총독부태도에불과하는 것으로、그것을 다시금 설명하야 신사참배는 어떤것이라는것을 학교당국과 일반에게 리해식히게 하려하엿슬뿐이다 즉선교사라던가 일반 신자인 개인에 대하여서는 신사참배를당장 강요함은아니고 학교교장과교원、학생、생도、아동은법령제도에 의하여 신사를참배함이 마땅하다는것인데 문제가 선교사와 교장이 가튼사람으로 경영되여잇기때문에 분규를 이르켯슬뿐이다 그러고 만일전긔학교당국에서 이에 응하지 안는다면 지정방침에 의하여 학교장의 인가를 취소하는수밧게 업슬것이고 또학교를 폐쇄하는경우까지 생기지 안흘까하는데 대해서 결코、그러치못하다 숭실전문학교는 재단법인임으로 그러리유로 마음대로 처리할수업는것은 물론이고 또 기타의 학교는 재단법인이 아니라해도 학교란것이 개인의 소유물과 가티 임의로처분할수는 업는것입으로 그러케쉽게 마음대로 폐쇄한다던가는 할수업슬터이나 그러케된다는 선교사자신을 위하여 선교사업의 대반을 철거하는것이 될터임으로 선교사자신들의손실이 될것이다

玄俊爀等三名 十七日에公判
嚴昌福은廿四日에

평안남북도지방의 평산로동자를 훈련망라하야 적색로동조합을조직하려고 비밀히 활동하다가작년 류월에 종로경찰서(鍾路署)에 발각되여 경성검사국에서치안유지법으로 긔소되여 예심을거처 작년 십이월에 경성지방법원공판으로 회부된 평남개천군 중서면오룡리(价川郡中西面五龍里) 리성진(李聲鎭)(二七)과서울 조선룡시사긔자로 잇든 현준혁(玄俊爀)(三一)과 그의 동생현관혁(玄寬爀)(二七)등 세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은 오는십칠일에 경성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제일회공판이 열리기로되엿다한다

◇

중국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를 졸업하고 의렬단(義烈團)장 김원봉(金元鳳)의 지령을 바더가지고 비밀히 조선에드러와서 의렬단의 행동강령(行動綱領)에 따라 조선안에서폭력수단으로 ××운동을 이르키려다가 작년십일월에 개성경찰서(開城署)에 붓잡힌 엄창복(嚴昌福)(二四)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은 오는 이십사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제일회공판이 열리기로 되엿다

또 작년 십이월이십팔일에예심이결정되여 공판으로 회부된 정봉학(鄭鳳學)에 관한불경사건도 이달에 경성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공판이 열리기로 되엿다한다

救急胃腸藥 活命水 同和藥房

金海穀檢瀆職事件
昨日五名을送局
出張所長과商人四名

【釜山】경남 곡물검사관 독직사건의 일부인 곡물검사소부산지소의 김해출장소(金海出張所)소장 박덕길(朴德吉)(四二)은 지난 십이월십륙일밤에 김해경찰서에 검거되고 또 곡물업자김해읍 모씨외사인이 검거되여엄중히 취조를 밧고잇다함은 긔보한바인데 요지음 취조기 끗낫슴으로 지난 십삼일 오전십일시경에 박덕길(朴德吉)은 수회죄(收賄)로 송국하얏고 곡물업자모씨외사인인 증회죄로 불구속으로 서류만 송국하얏는데 그들의 범죄내용은 작년 구월경에 곡물업자사인으로부터 현금백원과 회중금시계들을 수회하고 현미 일천가마니 검사에 등외품(等外品)을 삼등품으로부정검사를하고 십이월 십삼사일경에 김해읍 기타에서 수차의대접을 바덧다는 것이라한다

市內接客者檢診

경긔도위생과에서는 관내에잇는접객영업자(接客營業者)들의건강진단을 정리하야 보고하라는통첩을시내 각서에 발하엿는데종로서(鍾路署) 위생계에서도 관하에잇는 권번기생들과카페녀직당의 녀급들과 그밧게 갈음식점등의 접객인의 건강진단서를오는십칠일 이내로 제출케하엿다는바 이것으로서 종로유흥가외수만흔 꼿송이가 총검열을밧는셈이다

殖民政策批判 高官에게配付
金三民을檢事局送致

일즉이 동경과 조선에서 사별녕을 가진김종범(金鍾範)은작년가을부터 조선에 드러와서선만농민사(鮮滿農民社)라는 잡지사를 경영하고잇다가 별안간에작년말에 본정경찰서(本町署)에고등계에 붓잡혀서 한동안 줄판법위반(出版法違反)의 혐의로취조를 밧고잇다가 수일전에드되여 경성검사국으로 구속송국되야 취조를 밧고잇는 중이라한다

사건내용은 작년년말에 「다입라이드」로서 일본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과 조선총독부정치를 외국식민지정책과 비교하야 비판하는 의미의문서를 박어서 편지와가티 봉투에너허서 총독부각 고관들과 기타 서울안에잇는 각은행 회사등 중역들에게우편으로 발송한일이 잇섯는데 그것이 출판법위반의 혐의로 되엿기때문이라한다

祭基里火災 原因을追窮
火災保險에嫌疑두고

긔보=십삼일 오전한시경 시외제긔리(祭基里)사십륙번지 조규호(趙奎鎬)집에 불이이러나 일동사호를 전소하야 략일만원의피해가잇섯는바 발화의 원인에대하야 소관동대문서 사법계에서는 주임이하 총출동으로 려일 엄중히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이집이 모화재보험(火災保險)회사에 오천원이나 드러잇는것이 나타나 더욱 화재의원인이 미궁에빠젓슴으로 흥은 부정한 동긔가 끼여잇지 안혼가극력추궁하고 잇다한다

利川、水原、議政府街道 簡易鋪裝을施工
七百四十萬圓、約四十萬圓이부른 京畿道明年度豫算

경긔도에서는 지방과(地方課)에서 작년시월부터 십일년도예산편성에 착수하야 이래감부각과에서 모혀드는 예산요구액을정리하는한편 감부각과장회의를열어 엄밀한 사정(査定)을 계속하여오든바 요사이 대개사정이끗나서 십일년도예산안(豫算案)은 작십삼일에 내무부장 (內務部長)의 손을떠나 지금지방과에서 액수를 계산중으로 이삼일중에 지사(知事)의 최후결재를마른후 인쇄에 부치어 약십여일뒤에 도회의원에게 예산안을배부하야 오는이월 이십일경에도회(道會)를열고 최후의 심의를밧게 되엿다 명년도의 예산액은 약칠백사십만원 가량으로 금년도예산보다 약사십만원이늘엇다 명년도에는 각과에다개작으나마 다소의 신규사업을인정하엿는데 그중에도 가장예산을만히 인정된곳은 토목과(土木科)와 학무과(學務課)로토목사업으로는 경정 인천 개성등시에서 도비(道費)로 새로운토목사업을 일으키는외에 경성으로부터 리천(利川)수원(水原)의정부(議政府)벽제관(碧蹄館)가방면으로 가는 간선도로의 간이포장(鋪裝)을 시작하야 금년가을에 포장이끗날경인 가도와 아울러 도로를 일신케하며 학무과에서는 일면일교제를 완성식힐려로 학급증가(學級增加)학년연장등은 명년도에는 될수잇는대로 인정치안코 소화십이년도부터 시작될 제이차계획때까지밀예정이라한다

氷上의 太公望……(漢江에서)

올림픽拳鬪豫選前記 【上】
全朝鮮齊齊猛將 總出場의登龍陣
一發打倒式을警戒할戰術
十六日부터本社講堂서

◇…멀리伯林의戰地 獨逸로부터 울려오는 世界올림픽의 鐘소리는 各部門의健兒들의피를용소슴치게한다 이제 運動精神의榮譽로운 氣品에넘치고잇는 우리아마튜어拳鬪의精銳들도 國際舞臺를向하야 『온듸어마-크』를勢를取하고잇다

拳鬪의世界올림픽進出은 이미四年前『로스앤젤스』때에 斯界의先輩黃乙秀氏가 出征하야 奮鬪한것은 아직도우리의 記憶에새롭거니와 오늘의우리拳鬪界의實力은 또한 世界의舞臺에 進出할에 다른競技界에 조곰도遜色이업다 오는八月로迫頭한 伯林올림픽의 前哨戰인 全朝鮮豫選大會는 비로이틀을隔한 十六日부터 三日間(每日午後六時)本社大講堂特設링크에서 壯烈한幕이끈어떠러지게 되엿다 半島拳鬪界의 世界的進出을 熱烈히 應援하는『펜』은 이날밤의 사내다운살송치의 壯快한躍動을 기다리며 벌서부터 솟니는 人氣는바야흐로 膨脹되고잇다 이에簡單한 戰前豫想을 抄하기로하자

【寫眞은 上으로부터 朴龍辰 金昌輝 李奎煥 朴春緖 呂在德諸君】

◇…먼저올림픽代表의 詮衡方法은 朝鮮과日本內地의 關東關西、中部等 네곳豫選戰에서選拔되各級選手一名式이 來二月廿五日과 同廿七日의兩日間 東京日比谷公會堂에서 열리는 最終豫選戰을 거처서 비로소 伯林行의 與否를 알게될것이다 現在우리拳鬪界는 이기면 그만이다하고 『인파이트』또는 『스윙』으로넘어잇로主義의 所謂米國式拳鬪가 盛行하고잇스나 一發打倒式의 戰法은 特히올림픽拳鬪에는 拙劣한戰法이다 왜그러냐하면 百組가넘는 出場選手中에서相對마다 『넉아웃』으로 이겨버릴수는 업을것이며 지난『로스안젤스』大會때에도 KO敗를 당햇다는것이 不過三組에지나지못한것을 미루어보아 技術中心의拳鬪 卽 英國式의 姿勢를 일치안코 直立한『폼』의 正統派的拳鬪가 아니면 아니될것이다 『녁아웃』을 至上의 生命으로하는米國式拳鬪는 職業拳鬪는 모르되 올림픽에서는 勝算이업다는것이다

◇…이번에登場할 選手는 昨年度選手權保持者 朝鮮拳鬪俱樂部의 朴春緖(푸라이)、朴龍辰(페더ー)、李奎煥(라이트)諸君과東洋拳鬪會의 金昌輝(빤탐)君을비롯하야 멀리木浦에서 都鳳鉉(빤탐)君이 出戰하엿고 光州와井邑에서도 일속이 中央舞臺에서 全然 그力量을 試驗해보일이업는 慈星君이 出馬하고 年年히 決勝戰에 까지기서 哀惜히 물러간 平壤의强豪 呂在德(빤탐)、裵英俊(푸라이)兩君과新進 韓龍河(페더ー)、李利植(라이트)君도制霸를 꿈꾸며 出戰케되엿다 그뿐만이라 中央基靑拳鬪部에서는 猛將 沈在浩(빤탐)君을 先頭로韓俊鎬(푸라이)金善棋(페더ー)崔龍德、(라이트)權東麟(웰터ー)等의 諸强이 出陣할터이며 東洋拳鬪會 에서는푸라이級에잇서서 絶大한期待를밧는 辛以寶君을 爲始하야 驍將黃炳烈(푸라이)、李龍圭(페더ー)、文在善(페더ー)、孫春植(라이트)、金昌善(웰터)諸鬪士가 勇躍登場할터이다 그리고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前記選手權保持者外에도 精銳金裕昌(푸라이)、宋孝鎭(푸라이)、李相駿(빤탐)、片裕玉(빤탐)、林明煥(라이트)、金永燦(웰터ー)等諸勇將이 出場할터이며 京城拳鬪會에서는 新進金文煥(푸라이)、金明培(페더ー)、朴龍成(라이트)諸君이 出戰하기로되엿다 그밧게 元山에서趙永煥(페더ー)君과 咸興、水原仁川等의 無名勇士들이 出戰하야 비저낼 그壯觀한舞臺는 空前의期待를 끄을게한다(鳳梧生)

崇仁商業籠球陣容

【平壤】 京平의 兩都市中等籠球聯盟戰에 覇者!崇仁商業(平壤代表)對 養正高普(京城代表)의第二回 籠球對抗戰은 本社後援下에 來十七、八兩日間 平壤崇專體育館에서 열릴터인데 昨年第一回에는 中東軍과 崇商軍이無勝負로 마치뒤이라 人氣는더욱集中되고잇는바 平壤代表崇仁商業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監督=裵國彬氏

▲選手=RF崔成鐵、李福國、李明實、LF朴榮大、邊勝鐵、C趙得俊、李潤益、RG金鎔鎭、石道順、LG安昌鍵、金炳九

新義州出場 都市對抗氷上에

白狗滑氷俱樂部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氷上競技大會는 來十七日午後一時부터漢江特設링크에서 열릴터인데이大會에出戰할 新義州代表팀은 鴨江滑氷俱樂部員들로 共間猛練習을마치고 다음과가튼 代表選手를決定하엿다

◇新義州代表팀 ▲部長金信彦 ▲監督 崔福元 ▲主將朴鎭夏 ▲選手 李枝一、李止殷、任秉重、李燦德、金成爛、李泰洽、金鍵會、李英甲、柳林來金基瀛、邊成厦、朴鎭夏

咸興도出場

【咸興】來十七日에 京城漢江링크에서 開催되는 本社後援의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氷上競技大會에出場할 咸興代表選手는 十四日午後八時二十五分 咸興發列車로 必勝을期하면서、本報支局長張應基氏와 咸興體育會氷上部幹東韓台植氏引率下에 戰地京城으로 向發키로되엿다

▲選手=金漢集 李允容 金昔星金應春 韓台植

京仁間驛傳競走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 第四回京城上仁川間往復(五十一粁)驛傳競走大會는 三月二十一日(祭日)午前十時 總督府前을 出發歸着點으로 擧行될터인데 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

▲申請場所=總督府鑛山課眷藤係內 全朝鮮陸上競技協會

▲出場規定=朝鮮內 居住者로서一團體正選手六名、補缺二名

伊太利不出場 떼盃庭球戰에

【羅馬十三日發聯合】 伊太利庭球協會는 對伊制裁諸國과의 競技를行치안키로되여 今年度떼盃試合에 參加치안키를 正式決定하는同時에 制裁參加國의 庭球選手를 招聘치안을것은 勿論이요自國內의 各種『터나멘트』의單獨出場에도 禁止할旨를發表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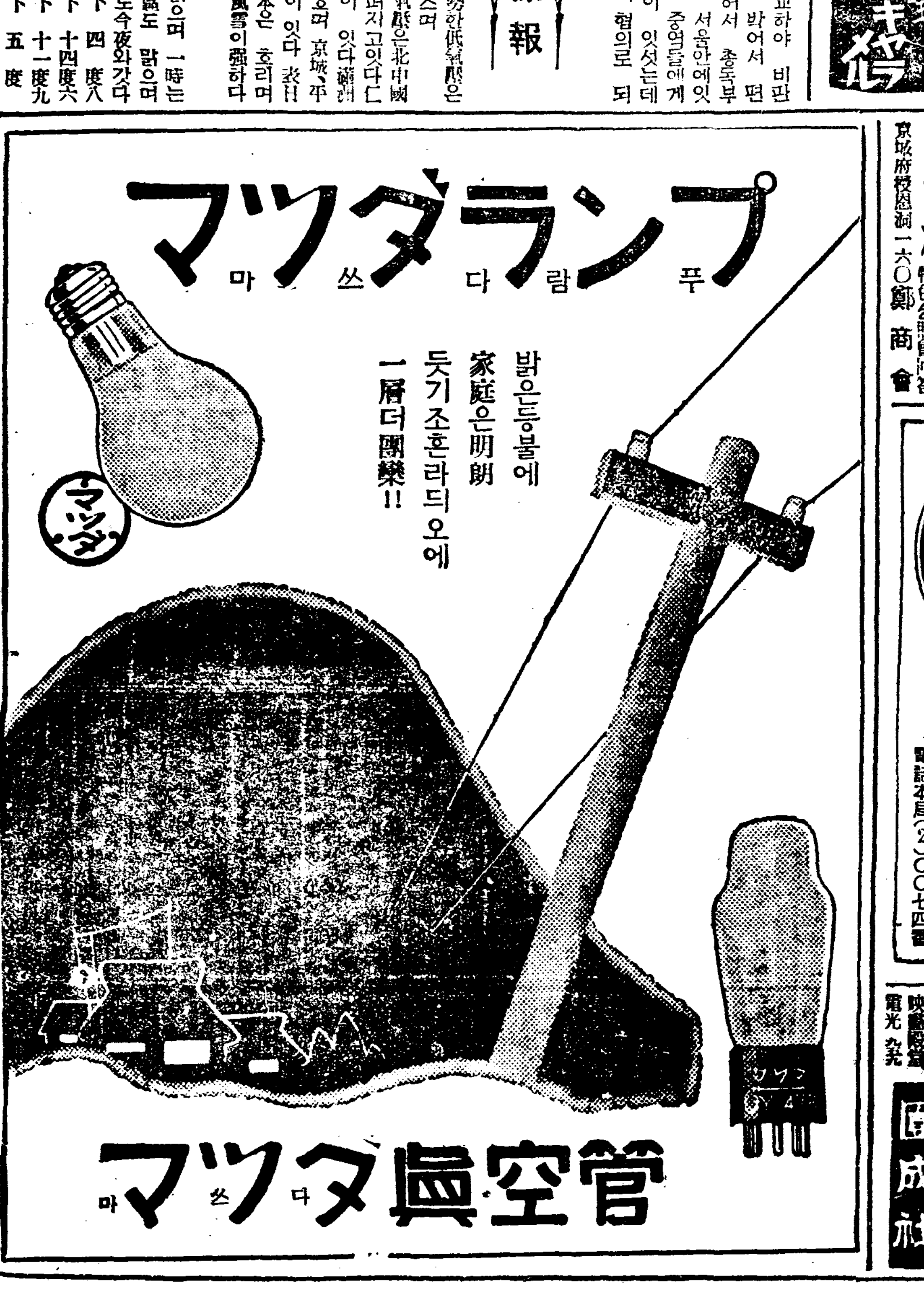
天氣豫報

七三四미리의 優勢한低氣壓은北海道東편에 잇스며 七七四미리의 高氣壓은北中國으로부터 朝鮮에퍼저고잇다 仁川冲에는小低氣壓이 잇다 滿洲朝鮮은 日氣가조흐며 京城、平壤地方에는 小雪이 잇다 表日本은 맑고 裏日本은 흐리며 北海道地方에는 風雪이强하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맑으며 一時는흐리다 京畿道全區도 맑으며 一時는흐리다明日도今夜와갓다

昨日	最高	零下	四度八
	最低	零下	十四度六
今朝	最低	零下	十一度九
今日	正午	零下	五度



恩給 長期擔保低利融通 他에比較할수업는最有利 信用잇는當店의 特色을照會하시오 京城府校洞一六〇 鄭商會

好職業 不景氣와失敗는업다 女小兒도適當할만한本業副業으로男女누구나할수잇는職業 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 福榮本舖

京城本町二丁目 諸岡運動具店 電本三六八八番 振替一五二六番 カタログ進呈

自轉車ランプ、電球各種卸 ラヂオ 電機 定價表進呈 卸商 西原商店 京城府本町四ノ八四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風病 大風病을百發百中全治하는有名한藥이本藥院에서發明되엿다 此風病藥이出生한지不久에慘酷한大風患者로서完全根治되는者가續出되며 …… 三個月服用하면表面에나타난風病症狀이完全히治癒된다 …… 京城府 風病根絶研究所 急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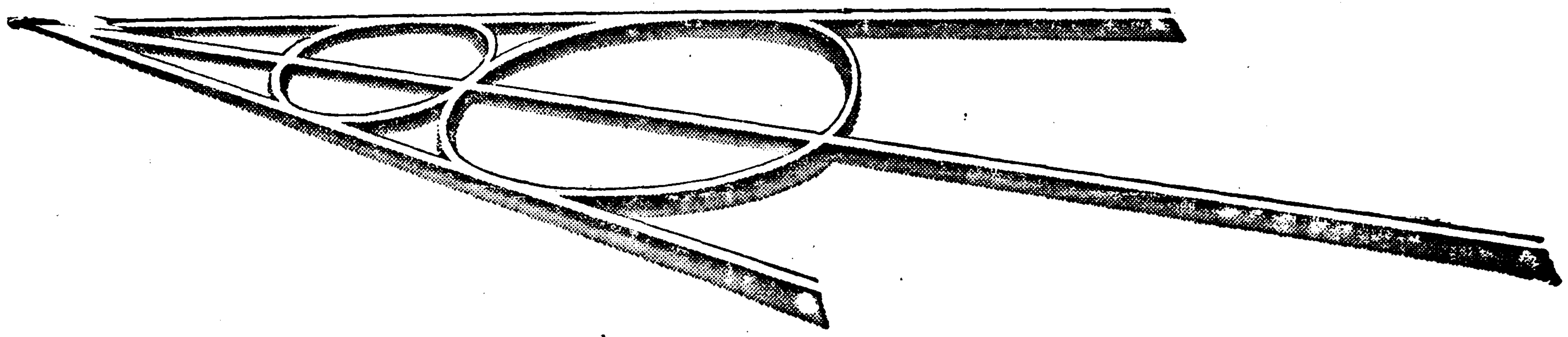
十二朔運解釋 大學士亭秘訣 本書는 演變奕本、一百七十頁全一冊、定價金六十錢 土亭先生의 眞本秘訣이今出하얏다 內容은 三百餘年을 秘藏하얏던 每年十二朔의運을月마다 演文十八句를 詮解로 …… 發賣所 數萬種新舊書籍을大制引都散賣 京城鍾路二丁目二〇 振替京城三九〇一 德興書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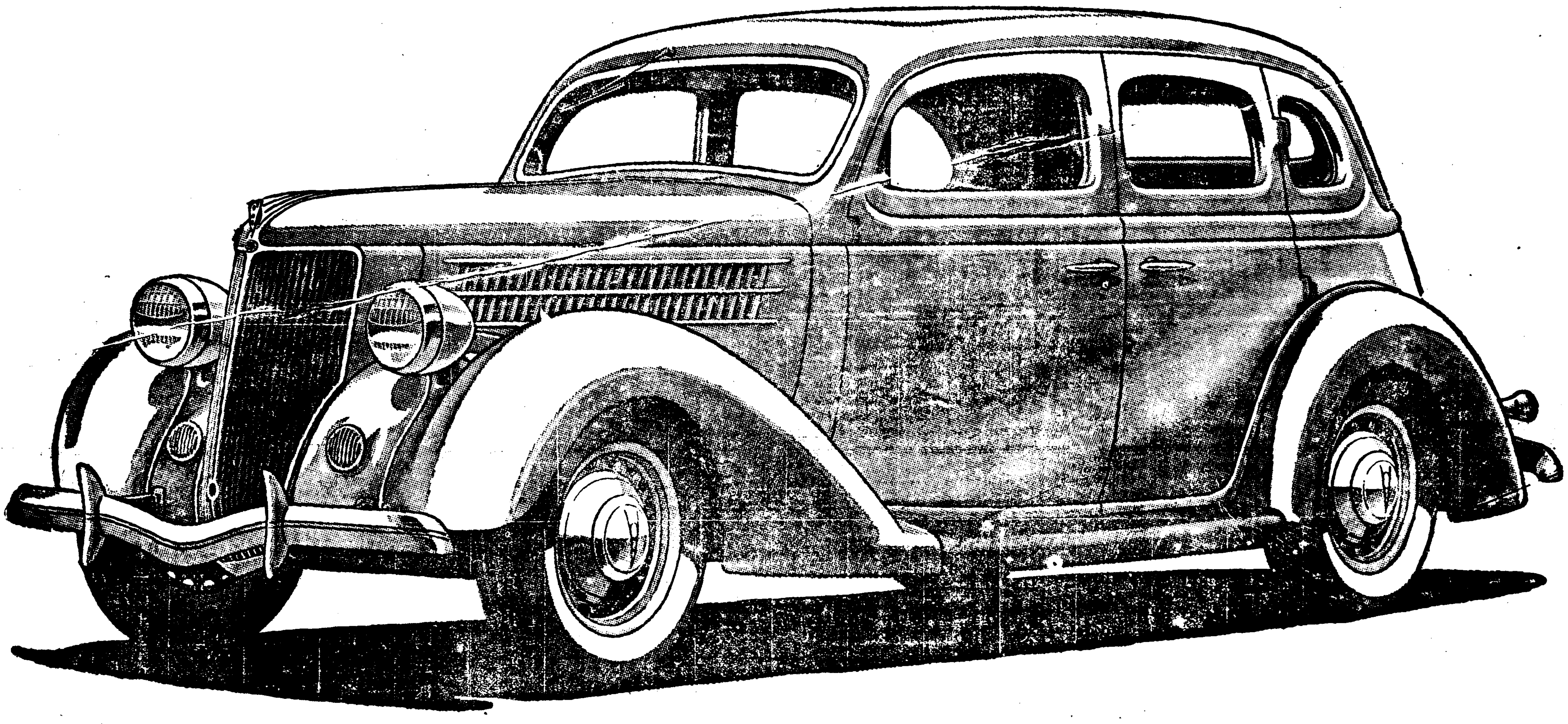
一月十五日封切 每日三回 佛蘭西에도라 名匠쥬리앙·쥬비부에特作監督 몬팔나쓰의밤 犯罪!痴情!獵奇!戰慄、…… 問題의名作에諸君은손에땀을주면서喝采하여라 ◆M·G·M·名作青春映畵 카르로 ◆P·C·L·特作映畵 原作サトウハチロウ 監督木村莊十二 三色旗ビルテイング P·C·L·옴스타出演 (次週封切) 全鮮第一映畵殿堂 團成社

頭痛の藥 はれやか 速効!速効! 먹으면 ¥0.30 ¥0.50 ¥1.00

十人이면十人의살에다맛는 牛乳石鹼 ·刺戟性이업고 ·살안거칠게하고 ·분이잘먹는 이런特長이여러분을「牛乳石鹼」愛用者로맨든原因이겟지요! 大阪·共進合石鹼株式會社

發表





1936年型 新フオード V·8
포ー드

임이定評잇는V•8에다더改良한것

000103

美觀

內部。外部가다 只今까지 製作된포ー드中에가장 美麗한車ー길다란포ー드。人目을끄는新型라지에ー타ー。그리루新型펀다ー。新型鋼鐵車輪。內張의新意匠과車室內의新式調度。廉價級車와中級車는勿論인젓。엇더한高價의車라도。美觀에잇서서 1936年型新포ー드에比肩할수잇는車는적다。

車室의悠適

ㄱ 고적어진V—8型엔진에依하야남은넓이에다가。後部座席은搭乘客의팔굼치를올여놀데가 3吋나널너젓다。

安全

純全鋼鐵製의完全한車體「鋼材로鋼을補强한强性」長期試鍊을바든。누구나다알수잇는設計의포ー드式超安全부레ー기는確實하고。容易하고도急速하게停車된다。

運動容易

1935年型의運轉은便하나1936年型에는換向操作타기ー야入換이顯著히더便하게되얏다。震動抹消器ー頑固한複動式新型은道路狀態에依하서調整된다。

其他改良多數

1935年間에도모든다른乘用車를리ー드한포ー드는다시優秀하야저서1936年을마지하게되얏습니다

目下포ー드特約販賣店에陳列中이오니아무조록高覽하심을願합니다

家庭

눈부치면 안면방해 이갈고 코고는사람
잠꼬대 고약한원인이 무엇일까
고치기는매우어렵다

잠을 가는 것은 몸을 편안히 쉬자는 것입니다。몸을 편안히 쉬는 것이 거강의 큰 조건이 되지안 할수 업는까닭으로 우리의 건강상으로 보아서 갑이 여간 중요치 안습니다。그런데 잠을 가면서 손짓발짓 하는 사람、이를 가는 사람、코를 고는 사람、잠고대를 하는 사람、심지어 가위에 눌리어 날뛰는 사람들등 별의별별 일이 다 만습니다。그런 사람들은 아모래도 잠을 잘 자는 폭이 아니라 건강에도 조치 못 하거니와 설사 아모러치 안타기로니 남볼에 꽤사나운 것만도 재미업는 노릇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성대병원이등내과(城大病院伊藤內科)에 게신 박병래(朴秉來)씨께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물어다가 이아래 소개합니다。

×

엇재서 이를 갈고 코를골게 되느냐고요? 혹 코속이나 목안에 병이 생기어 가지고 그러케 되는수도 잇지만은 아모까닭업시 그러케 버릇드는수도 잇습니다。그러니까몬저

의사에게진단을

마터 병으로 원인이되는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병은 어떠어떠한병이냐고요?비후성비염(肥厚性鼻炎)이라든지아데노이드라는지의 종류입니다。아데노이드란 편도선(扁桃腺)이 부어오르는 증세로서 그병에걸린아해들이 천치처럼 되기때문에 그러치안해도 빨리 수술해서 업새는것이 조흡니다。그러고그이외에도 몸이몹시 피곤해가지고 잠을、잣다거나 잔뜩

과식을해가지고

잡이 들엇다거나 할때 이를갈고 코를고는수도 업지를 안습니다。그런경우에는 그원인이되는사항에 대하야 충분히 주의만 한다면 곳나흘수가 잇는것입니다。베개를 잘못비어서코를고는때는 업느냐고요?왜그럴수도 잇습니다。이를가는 사람의빰을치면 그것이 엇재서 끄치느냐고요?중추신경(中樞神經)의반사 작용(反射作用)을 인연하는 까닭입니다。그러나 베개를 바로 잡아누이고

빰을따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치료는 되지 못합니다。병으로 생기는 것은 병을 고처야 할것이지만은 아모까닭업시 생기는것은 할수업는일입니다。

×

또 엇재서 손짓발짓을 하고 잠고대를 하느냐고요? 그것은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그꿈에잇서 손발을 놀린다든지 말을 하는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그것을 고치자면 무저 꿈업시 잠을 자도록 맨들어야합니다。

어떠케꿈을업시

하는수가 잇느냐고요? 크롬제를 먹고 그래도 듯지 안는경우에는 최면제를 먹습니다。한종류의 최면제(催眠劑)를 두고두고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도 이런것 저런것 박구어 가면서 먹어야 합니다。그러나 최면제를 먹는데는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조습니다。그래서 그분량이라든지 석박구어 먹는종류라든지를 하정서야합니다。그런데여긔서도

과로와과식후의

잠으로 말미아마 생기는 수가 잇습니다。될수잇스면 과로와과식후의 잠을 피하는 것이 제일입니다。가위는 어떠냐고요? 그것도 잠고대나 마찬가지로 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외빰을 치고 외발을 굴려야 낫는다고요? 빰을치고발을굴려서 그사람의 잠을 깨게 하는 것은그럴듯도 하지만은 하필 엇재서 왼 빰외발이라야 하는지는 까닭을 모르겟습니다。그것은 아마 미신일것 갓습니다。

바른빰을치거나

바른발을 굴른더라도 효과는마찬가지요 또 그러케 안 하고 딴방법으로 잠을 깨우더라도효과는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분얼골을베길때 너머문대지말일

늘말씀하는바이지만 화장하실때 분을너머 짓트게바르는것은 미용상으로 보와도 그리 고와보이지 안흘뿐아니라 피부에도 대단히 조치못합니다 그리고분을 보얏케 바르고 손바닥으로 얼골을 사정업시 문대서 분때를 미루는것은 피부에 조치안흘뿐 아니라 당장압프기도합니다 또피부가 느러저서 주룸살도 쉬집니다 그러고 짓흔화장을 하엿슬때 밤에 그대로 자는것은 더욱자미 업습니다 반다시 칠선에 들기전에 세수를 깨끗이하고 올리부기름을 얼골전체에다 바른다음까ー제로살결을따라 닥그십시요 그리고다음을 따뜻한물에 축여 얼골을 푹려퍼서 지근지근눌러가면서증긔를 쏘이고난다음콜드크림으로 마찰을하고 한번더 증긔를 쏘이면 잇든날 분도잘먹고 피부도 고와집니다 그리고 될수잇는대로 분을 굿게 개서바르지마시고 화장수를 쓰서서 물게 개어서 바르는것이 피부에 해가되지 안습니다

가정부인협회
창립이주년축하식

시내인사동 태화녀자관안에 잇는 가정부인협회는 작십이일이 동회가창립된지 이주년을 맛는날이라하야 그것을 축하하는뜻으로 정오에 큰잔체를여려 여러회원이 화기에애한가운데 여흥으로서 진겁게 이날을그념하고 오후네시나되어 헤여젓습니고 사진은 당일의축하회장

當選小說 寺下村 (7)
金廷漢 作 安夕影 畫

안산 봉오리에 장작불을 피워노코 성동리 사람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어떤위인은 낡은 두루막이 또어떤위인은 제법 몽당 도포까지 걸치고서 죽늘어섯다。구장、듭깨、갓이 비루러진 봉주……。

옛날 서당 훈장기를 한든 노인이 쥐꼬리보다작은 상투를 숙이고서 축문을 읽자、농민들은 일제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절을하고 비를 빈다。

『우리들을 직혀주시는 천상의 옥황상제님이시여……!』

하고、몃번이나 코가 땅에 닷토록 절을했다。이글이글 타올으는 불꼿을 따라 그들의 긔도도 천상에 통하는듯 십혓다。

귀우제는 꿋낫다。

『깽무깽깽 쿵당당당、깽무깽깽 쿵당당당……』

농부들은 풍물(農樂)을 울리면서 동산을 내려왓다。

동내압 타작마당에서 그들은 태평성대인듯 소고법구를 내돌으며 한바탕 놀앗다。조고만애색기들도 호박꼿에 반듸불을 따너허들고서 어른들을 따라뛰다

『구、구、구장어른 저、저、구름보소!』

봉주란놈이 무슨큰 발견이나 하듯이 궁둥춤을 추면서 웨오친다。아닌게아니라、검으스럼한 구름人장하나가 달을 향해 떠온다。

『조타——쿵덕쿵덕!』

농부들은 비나떠러진듯이 껑충껑충 뛰엇다。

그러나 그것도 모다 헛수작 하로 이틀——비는 커녕 비사촌도 안오고 마음만더졸릴뿐이엇다。불안은 각각으로 커갓다。

그러한 하로날 보광사농사조합에서 성동리의 유력자——쇠다리주사와、면서긔며 농사조합평의원인 진수를 청해갓다。

그들이 저쭉의 의논에 응하고 가저온소식——그것은、오는 백중날 보광사에서 귀우불공을 아주 크게할 예정이니깐、성동리서는 적어도 한집에 한사람평균은 참석을 하는것이 조켓다고。귀우불공이라니 고마운말이다。

『그러나 우리가든것 그리만히 모아서 뭘해? 불공은 자기네들이 할텐데。』

농민들은 무슨 뜻이지 잠불랐다。

그러나 안갓스면 가만이 안갓지、보광사의 논을 부처먹고사는 그들이라 반대할수는 업는처지다。이왕하는김이면 패불(掛佛)까지 내걸어 달라고 농부들도한가지 청했다。패불을 내걸면 아무리어려운 일이라도 소원성취된다는 말을 어릴때부터 들어온 그들이다。

그러나 절칙에서는 경비가 만히 든다고 뚝 잡아떼엇다。고까지업에 무슨 경비가 그리들까봐! 어듸 과연 려협이 잇나어나보자——농부들은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작고 청했다 구장이 두어번 헛거름을하고난뒤、쇠다리주사가 가드니 겨우 승락을 바다왓다。

그래서 칠월 백중날!

보광사에서는 새벽부터 큰종이 꽝!꽝! 울녓다。

성동리사람들은——진수와 구장과 그다음 몃사람 빼노코는 대개 중나이 넘은 안악네들과 쓸데업는 아이색기들 뿐이엇지만——장스군가리 떼를 지어서 절로 올라갓다。

천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백여명의 노승소승이 백여잇는 선찰대본산보광사에는、밥서 백중불공차로 이곳 저곳에서 모혀든 안악네들이 와글와글한다。

오색단청이 찬란한 대웅전을 비롯하야풍경소리 그윽한 명부전、팔상전 오백라한전……부처모신 방마다 웬만한 따위는 발도 못드려노흘만큼 사람이 꽉꽉 들어찻다。그들은 궁둥이를 서로대고 부비며짜고서서는、두손을 놉게들어 머리우에서부터 합장을 하고 나붓이 주절을한다。아들딸을 복만이 달라는등 허리압흔것 어서 낫게해달라는동……제각금 소원을 은근히빌면서。잡자리 날개보다 더얇은 비단 옷에 모다 제가 잘난체 부처님 무릅압 히사함(喜捨函)에 앗김업시 돈을 핑핑 던저넛코가는 그들! 얼른보면 죄다 만석군의 부인、알고보면 태반은 빗내어온이들。

성동리 안악네들은 명부전뒤 한구석에서 잠간 땀을 거두고 대웅전 압흐로 나왓다。자긔들따에는 힘껏 차려봐스나 안잣는지 섯는지 분간을 못하게 풀이빽빽한 삼뵈치마따위가 그럼자리에 어울릴리가 업섯다。다른이들과 동떠러지게 차가잇는 자긔들의 몰차림을 붓러워하면서 차례를 기다리고잇다。

그리자、몃칠전부터 와잇는 진수어머니가 어듸서보고 쪼차온다。아주반가운듯이——。

『모두 어데잇섯서? 아무리 차자도 원……다들 오처님 밧소?』

자긔는 발서 부잘이나 된셈치는 말人조다。

『앗밧소。돈이 잇서야지!』

이 얼마나 모레천만한 대답일까!

『그럼、돈도업시 절에는 뭘하러들왓소?』지수어머니는 입을 빗죽하드니、

『이것들 갓혀 잇나가는 큰당신하겟수나。』할듯한 얼골로서 어듸로 핑가버린다。

삼뵈치마쟁이들은 잠간 주저주저 하다가『돈적으면 복적게 밧시。』하고 남편과 아들들이 배를 골아가며 땜나무장이나팔아서 어든 돈을 빗의꼿전도못갑게 알뜰살뜰이도 부처님압헤 바치고 나온다。그중에는 앗가운것이 돌아보는 이도잇다。

家庭醫學

듯지못하는데

[문] 금년열세살된 남자인대어렷슬대는 아무러치 안튼애가커가면서 점점잘 듯지못하더니지금은듯지못하오니 고칠수잇슬가요 (平壤一讀者)

[답] 지금정확히 말슴드릴수업사오나 그원인에따라 지금이라도혹고칠는지 알수업스니 당신은평양게시므로 귀지고명한 이비후과 전문의를 차저문의해보시요

머리에부스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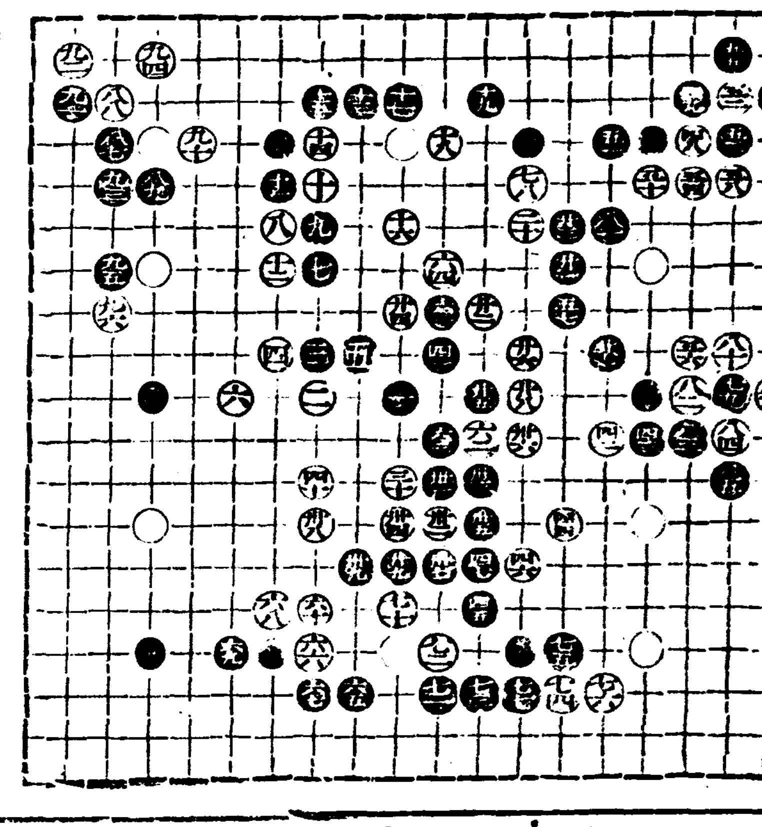
[문] 세살된녀아입니다 작년홍역한뒤부터 머리뒤에 부스럼이나더니 그것이완치되엿스나 그것으로이한인지 목뒤에 몽굴몽굴한것이 잇습니다 그런대 메칠전부터 작년낫든곳에 다시여증이생기며 퍼질려고합니다 치료법을 가르처주시옵소서 (昭格洞 一〇三)

[답] 염증위끌은데는 집에서도저히 치료할수업슬뿐더러 서푸리하다는 도로혀 결과가 조치못할터이오니 미안하오나 락합니다그런데 당신은서울시사므로속히 외과전문의를차저보시요 진에서민간약으로 이약저약쓰시다가는 닭잡을손님께 소잡게될것입니다 (城大小兒科研究室 李㙇鳳)

本社主催 圍棊對局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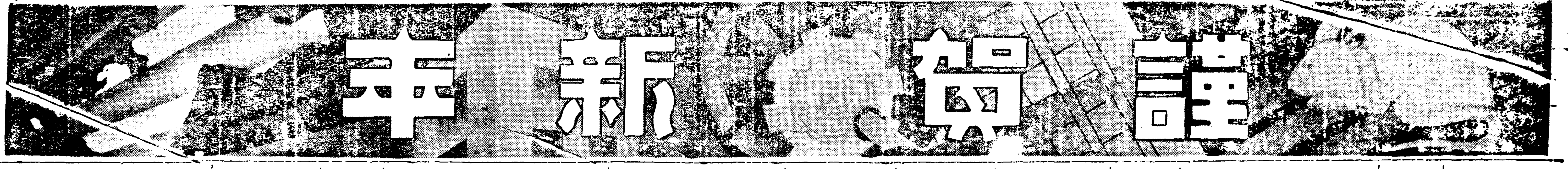
白 段極文　黑 丁壺春

○ 戊의六
● 丙의十
○ 丙의十一
● 乙의十一
○ 乙의十二
● 甲의十
○ 午의四
● 午의三
○ 巳의五
● 辰의四
○ 未의三
● 未의二
○ 午의五
● 巳의二
○ 午의七
● 午의八



◆對局者談

黑이 北邊 白非角의 先補를 受應하야 黑子當先格으로 乙의十二 點을 不救하고 午의四로 白背後를 壓하야 自成一區에 迂回曲折로 奇變多端이나 對應이 亦强하니 前後解節은 等閑視 못하리로다 白이 未의二로 除又除하고 巳의二로 列着함은 近可함을 自認하나 午의八로 接함은 疑信을 難分이라 黑의 接應이 何如할는지



鎭南浦
鎭南浦府外里 私立集成學校
鎭南浦本通 百貨店 萬貨昌 代表電話二六六番

開城
開城府南本町二〇〇 開城人蔘商會
開城公立商業學校

新長
廣州郡東部面新長里 廣昌釀造所 主 李昌夏
廣州郡中岱面松坡 百濟釀造所 吉村進一
松坡金融組合 新長支所職員一同

漣川
漣川郡郡內面車灘里 朝鮮料理 支那料理 鋏原館
漣川郡郡內面車灘里 和信連鎖店 張基涉
漣川 漣川繁榮會
漣川郡郡內面車灘里 公醫 張圭珍
漣川郡郡內面車灘里 漣川百貨店 路泰仁
漣川釀造株式會社

三水
三水郡別東面 面長 韓錫 書記 鄭學模 同 姜齊鳳 同 禹昌奎 同 韓商武
三水郡別東面柿木里 海龍學校 職員一同
三水郡三西面堡城里 堡城山農共勵組合

統營
統營郡東部面多大里 東部面芝串釀造場 朴同實
有志 金有實
東部面芝串里 檜木辰次

唐津
沔川面長 具命書
唐津 郵便所長
唐津、松山、松嶽、石門 公普校
唐津金融組合大宜支所 副理事 韓興澤

牙山
石門面三花里 印萬植
牙山郡 公立學校長團
溫陽溫泉 回生醫院 韋基浩
忠南新昌驛前 新昌釀造所

原州
新昌面新興里 金東九
蛇ノ目ミシン分店 同營商會主 文元植
溫陽溫泉 李順億
溫陽溫泉 元壽巡
原州郡健登面文幕市 共榮商會 主 李斗榮 元亨圭
原州酒造組合 鄭鎬振
原州郡建登面 職員一同
原州邑本町通 文齊旅館 蔡奎文
原州邑 原城醫院 院長 洪淳哲 電話五七番
原州郡地正面艮峴里 三鶴酒 艮峴酒造場 主 崔昌東
原州邑 金權トラック 原州營業所

興南
西湖金融組合 金東連 姜鳳 金鍾 金基鮮 金明南
南邑本町 孔承建

新興
咸南新興郡東上面元豐市 新豐釀酒所 主 金元河
咸南新興線元豐驛前 關東醫院 醫師 中鍋永
東上面 職員一同
東上産業組合 職員一同
新興郡東上面 東上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興郡東上面元豐里 中央寫眞館 技師 金泳海
新興郡東上面 元豐森林保護組合 聯合會
新興郡東上面元豐里 金鎬明

潭陽
全南潭陽邑內 鄭仲然

大同
大同郡柴足面將泉里 私立信義學校 理事 金丁燮 尹仲三 朴應奎 金時俊 金益洙 金智洙 金弼洙 鄭泰來 韓用禮 金雄熙
大同郡林原面 朝鮮無煙炭株式會社 三神炭坑
大同郡秋乙美面梨川里 財團法人新友學校
大同郡 美林公立普通學校
大同郡柴足面長 吉昇奎
大同郡柴足面 長水院水利組合 職員一同

中和
中和各官公署一同
朝鮮日報社中和支局 支局長 金明煥 電話八番・振替京城二三八一二番

大田
大德郡鎭岑面事務所職員一同
同 柳川面事務所職員一同
同 山內面事務所職員一同
同 杞城面事務所職員一同
同 外南面事務所職員一同
同 北面事務所職員一同
同 懷德面事務所職員一同
同 九則面事務所職員一同
大田府大東町 宋廷淳
大田府本町二丁目 大同社大田支部
大德郡炭洞面秋木里 水雲敎本部
大德郡炭洞面事務所 職員一同
名古屋市南區野立町(瓶屋橋西) 日新屋酒店 姜信璜

長淵
長淵郡松川市 和信松川連鎖店 主 李泓基

名古屋
岐阜市會議員 岐阜市參事會員 李相雲 自宅岐阜市吉野町二丁目

挿橋
禮山郡 古德金融組合 挿橋支所

公州
公州邑旭町 喪中欠禮 文洪範

鎭川
鎭川 土曜會

博川
博川邑中央通 各種農具 和洋金物 オート牛車道具 建築金物 硝子藥種類 雜貨卸賣 博川金物店 主 金相國
學務委員 吳吉相

忠州
忠州邑 麯子組合 金在皓
忠州邑長 秋山文雄
忠州警察署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忠州支部 李相泰

尙州
尙州邑西町 李東燮
尙州邑西門通 尙信印刷所 電話五七番

新泰仁
泰仁面事務所 職員一同

洪城
朝鮮忠南洪城邑 金銀細工 ブリキ製造元 時計眼鏡蓄音器 ラヂオ、レコード及電具 樂器販賣修繕 明華堂 趙大奎

丙子年을通해본朝鮮

丙子條約의史的意義 (五)

文一平

歷史는 거의 비슷한形式으로 되푸리함을 보겟다 丙子條約前의 日韓關係는 丙子亂離前의 淸韓關係를 어림푸시 聯想케한다 첫재 大院君政府의 **排日熱**이 仁祖十政府의排淸熱과 類似한點이오 둘재 日本의實力을 너무나 過小視한것이 滿洲의實力을 너무나 過小視한것과 類似한點이오 셋재 武備도업시 挑戰的態度를 取하야 相對方을 激怒시킨것이 역시 서로 類似한點이니 이때 만일大院君이 失勢하지 아니하고 西鄕隆盛一派의 일은바 征韓論이 得勢하엿던들 흑은 丙子條約대신에 丙子亂離가 또다시 낫을는지 모른다 明治以來 몃번이나 危機에瀕햇든 日韓關係는 할아트면 丙子以前에 발서破綻되엇을 것인데 다만 西勢東漸에 依하야 東方國際情勢가 이것을 許하지 아니한때문으로

日本當政者가 隱忍自重하야 丙子에까지 이르게 되엇든것이다 그러나 乙亥年九月에 江華에浮浪서 **突發된** 雲揚號事件으로서 日本朝野를 震撼시켜 征韓論者中에서 征韓論의 再燃함을 보게 되엇스나 明治政府에서는 一大의 計로 이機會에 아모조록 朝鮮과 修好通商을 터서 門戶의 開放을 크게 擴張하려 하엿다 이때朝鮮當處에서는 猶豫하야 아직도못하고 잇다가 日本全權黑田淸隆과 副全權井上馨等이 六隻의 軍艦과 八百의 兵員을 끌고와서 問罪함에 미처서야 비로소 昨年江華戍卒의砲擊한 異樣船이 日本軍艦 雲揚號임을 알고 놀라엿나 이에 宗廟에서 判府事申櫶과 副使尹滋承을 命하사 黑田淸隆等으로 더부러江華에 會同하야 談判케 하엿스나 大院君以下 反對派의 氣勢가 아즉도 猛烈하야 廟議

가 動搖되더니 多幸히 朴珪壽 **吳慶錫**의 從中周旋과 淸使吉和의 諷示도 잇섯슴으로 高宗께서도 特히平和를 愛念하사 幾多의 困難을 물리치시고 日本全權이 提出한 十二款에 對하야 裁可하심에 이르럿다 丙子年에江華 鍊武堂에서 成立된 韓日修好條規의 由來는 대강 이러하다 이條規의 大精神은 第一款의 朝鮮의自主를 表明한데 잇스니 이는 兩國隣交涉上 먼저 그主體를 確認할 必要로 그러한것이나 後日淸日兩政局에 미친 影響으로보아 실로 意味가 深長한바 잇다 그리고 이밧게도 開港 通商및 治外法權가튼 모든 規定이 잇섯는데 이條規의 締結은 朝鮮이 最初로부터 아무抵抗가 업섯슴으로 幾多의 摩擦이 생기게 되엇는바 이러케 **朝鮮은** 아주 舊代國家的生活에 하엿

合에 反하야 當時日本은 刮目하게 泰西新文明에 足並步를 하엿든것이다 日韓大惠를 機轉하 ?氏에 잇서서도 儒教外에 來西洋文明의 新衛을 어덧스나 진작부터 動搖되기 시작한 日韓

아 海上에 自由로 橫行하는것도 三百年前에 大路鳥銃을 가젓든 日本人의比가 아니지만 精銳한器械에 서뿐 아니라 治國의 文化上地位가 이에 이르러 아주 精制되고 말앗다 이것이 日韓交涉이 잇는 數千年以來 크게 注目할 史實이다 이런意味에서

丙子條約은 近代文明의 一端을 가저 我에게 臨한것으로 勃興하는 明治의新日本이 大陸의一角에 그勢力을 펴려는 第一步라고 볼수잇다 日本人北進의 步武가 이半島에서 最初의 出發을 하게되엇거니와 十九世紀末에 歐洲人東侵의 潮流가 역시 이半島에서 最後의 氾濫을 하게 되니만치 한동안 朝鮮은 東西列强의 **逐鹿場**을 일우엇든 觀이 잇섯다 그러나 朝鮮을 中心하고 長대地理上 및上 가장密接한關係를 가진이는 어느누구보담도 日淸이엇스니 日本에게 左袒할가 淸에게 左袒할가 이는 마치 三百年前에 淸人이 新興할때 淸에게 左袒할가 明에게 左袒할가 彷徨하든것과 비슷한것으로 다만 近代國際關係가 녯날에 比하야 일층더 複雜한것이 다를뿐이다 어쨋든지 丙子條約으로 甲午戰爭에 이르기까지 日淸間의 朝鮮은 甲午役前後 彷徨한 點이 잇다 아아 朝鮮人이 自守天職을 못하기 때문에 國際的도마우에 올으내리는것은 녜나이제나 거의 마찬가지다 (完)

(寫眞은 締約한江華練武堂)

學藝

現代文學의課題인 人間探求와苦惱의精神

創作에잇서個性과普遍性等 ③

白鐵

나는 여기서 그感傷主義가同伴되고잇는 例로서 먼저人間探求問題의 一延長으로볼수잇는行動主義가 無批判的으로 攝取되려고 하는部分에서 그것을 指摘하려고한다 行動主義란 누구나 다아는바와가티 佛國의『메르낭데스』의 轉向과『A·지이드』等의 提唱下에 시작 되것이나 그것이 그대로 東京이라는 都市를 거처서 이곳에 輸入되기에는 適宜 여러가지點에서 不自然하고 無理스러운點이잇다 이때에잇서서 우리들은 첫재로『지이드』等이 智識階級의作家로 어느程度의人間苦를 通해온作家임을

▽……**理解**해야할것이며 또하나는『지이드』와『메르낭데스』等이 行動主義를 主張하며잇는 佛蘭西라는 先進資本國家및 그나라의 智識階級과 直接우리들의 生活하는地帶및 그智識階級을 김은注目下에 比較對照하면서 觀察深處해야할것이잇다

말하면『지이드』等은 智識階級의人間으로서 自身이 苦悶의生涯를通過하야 現在는智識階級의苦悶過程을 철저히 經過한 作家인까닭에『行動主義』는 첫재로 그提唱者自身의實際的意義를가진것이오 둘재로는佛蘭西의智識階級一般이 어느程度까지 그提唱에

▽……**應酬**할수잇는現實的一定限度에서 그들이智識人으로서의 苦悶을克服할수잇는過程에處해잇는때문에 이行動主義는 全般으로는 必然한現實性을 反映하엿다고 보여지거니와 그와反對로 우리들의 處하고잇는이땅 文壇에는 不幸히도 그러한 아무現實的條件이 準備되여 잇지못하다 조선에『지이드』와 가튼 苦悶克服의 長久한歷史를가진 作家의문제는 여기서 指論할것도 업거니와 단순히 現實이란條件으로 볼때에도 이行動主義가 그대로輸入될 수업는것만은 너무나 既然한事實이다 今日의 여기의智識階級의 現實(여기서는 便宜上 智識階級에만 局限하자!)은 그것이 苦惱의克服의 過程에 處해잇는 것이 아니고 그境界에서 자못「距離」를 隔한 前過程에 殘留해잇다고 보여진다! 그境地는 行動的意義로 說明될것이아니라 孤獨, 苦忍의心理로 表現될것이 도리어 當然할것이다 回想하면 이땅의 智識階級도 過去에는 不幸한가운데도 오히려 여러가지交替되는 情熱, 이것이 民族愛的이든 人類愛的이든!)가운데

▽……**眞理**와生과 ... 情懷을 가지고 살어오든일이 잇섯다 하나 그것이 今日에와서는 그不完全한 情熱조차가 彼岸에 살어지지 안햇든가? 그들이 바라보고잇든 希望과 憧憬의 女神은 그의 後光을 暗黑한 天氣뒤편에 감추어버린지 이미 그時日이 오래다! 내가 接하는景色이 暗澹한色彩라면 이곳과 智識階級이 表白된現實은 全한 暗黑과 苦悶의精神이라고 볼수잇다 따라서 그들智識階級人들의것을 文化生活의臨하는 態度에도 絶望과孤獨에 빠진 人間— 거기에서오는 一部的으로는 消極的으로 그不安에屈從하는自棄와 傷心, 一部는 그것에 反逆하려고 할때에 생기는 苦惱, 苦悶의精神, 그러한 狀態가 今日의 一致的色彩일것이요 여기에 直接으로 苦悶克服의可能한 現實, 行動의世界가 그대로 업다면 作家李氏는 언제나 冷酷한態度로 孤獨의 深淵!이라고形容할수잇다!(그것은孤獨의 深淵!이라고形容할 『카래스』)을그의 作品의 唯一한『카래스』로삼고잇다! 明確한리얼리즘의描寫法에는 人物들의 色彩가풀로고잇슴에 不拘하고 거기에는단순히 孤獨에對한 描寫만이잇지안코 作家自身까지가 그孤獨의深淵에 自沈하고잇스며 그孤獨의寂寞憧憬 또

漢詩

桐崗考選

迎春—押生

選外佳作之三 永興郡 韓斗淵

雪後山河淑氣生
載陽消息萬和晴
東窓報得芳梅信
南國來傳候雁聲
大陸風霜經浩怯
一天雨露造恩榮
憔憔朝槿須爲惜
培我靑邱好養成

▽……**直境**으로提示된現實로說明하는 一典型的作家로서 李泰俊氏를 任意로例擧해보자! 요즘 氏의 作品의 數三篇을 읽어본 나의評로 提示된現實은 왓슴理가 업는그深淵에 耽樂하는情熱까지가 흘르고잇슴때가잇다 이것은唯獨히 李泰俊氏뿐이아니고 그와갓흔例를 到處에서 指摘例擧할수잇슬줄안다 다른評家는 여기서 강흔智識階級作家로서 張赫宙, 朴花城, 姜敬愛等의 例를들어그들은 一種의行動의 世界를 暗示描寫한다고

▽……**指摘**할는지모르나 行動主義가提唱되든때의 作家의實例및現實的意義와 關聯하야생각할때에는 行動主義에 適用할 作家의 例로는 張, 朴氏等보다 李氏가 適宜하다고 보지안흘수업다! 왜 그러나하면 張氏等은 現實의不安과 暗黑에對하야 그것을 實際로 通過하면서 苦悶하는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그것을 克服이라고 할수잇다

情의興奮의表現 그것이아니고 그것이前過程인孤寂한 不安狀態 그것은行動主義的인것보다는 도리혀 『케아케골』的意味의 孤獨의表現에도 그러한作家의例를 우리조선서 차저볼때에는 李泰俊氏等의 傾向이 각갑다고보여지나 이때에도 李氏의作品은感情의興奮狀態의表現으로 降伏하는 意에대한 一個의感情의解放, 精神現으로 보지안코 단순히 苦惱가 그것을實際의 苦惱克服過程의表現이라고 이行動主義를 一步물러서서 距離가잇다고보여진다 그리

鄕歌解讀에就하야

特히願往生歌를中心으로

⑥ 梁柱東

老人獻花歌의 首句— 紫布岩乎邊希 를 氏는 解釋에 窮하야『布』를『곤』이라 解하엿스나(一五六頁), 이것도 勿論『紫布』를 어쫌고『紫布』에『곤』은 먹는뒤에『布』字를『곤』으로 만든기爲하야 無理한 說明을 한것이 아닌가.『곤옥』은 嚴密히 말하자면『곤옥』이니『布』는『곤』으로 읽을수는 없나. 곤옥의『곳』은『곤』『곤』의『곧』의義이나, 이말의 更讀의 適音은 副戶長鄭柔, 麻一造(淨兜寺造塔記)

인데, 前間氏는 이를 不明이라 하엿스나(東洋學報 第十五卷 第三號所載, 同氏『若木遺塔記』解題)『一邊乎』『한갓』이라읽을것이니,『곳』一定이란 말이오,『邊』(叉)으로서『갓』(邊)을 記한것이다. (邊라 함은가튼 語源이다) 小倉氏는 곳읽에 스스로不安을 늣겻슴인지,『布』字가『巾』의 誤가아닌가하는疑를 作하엿다. 나의 생각으론, 이『岩乎』(바회)의形容詞는『진뵈』라 斷하려한다. 鷄林類事에 紫曰質背

라 明記하엿스나,『質』은 類事의 다른入聲字, 例컨대 捺·率·密等이 거위 다 終聲『ㄷ』을 그대로 表示하는것으로 미루어서 靑대로『진』이라 읽을것이오『背』는 갈은 類事에 綺曰珂背(마뵈—近世에『고이』로 轉함. 이말은 麗代에서부터 鄕歌에하엿것이나, 梁書新羅傳에 잇는 綺曰柯半은 곧 그것이다.) 綾曰背氏(보혀·氏은 成의誤?) 等의 用例가 잇으나, 特히 布曰背의 一項에 依하야 釋然한바가

잇다. 即『紫曰質背』는『質布』字의 古音은 라고도 쓸수잇고, 鄕歌의 寫法에서는『明斤』(붉一)、『早隱』(이른)、『直等隱』(고든)과가티『紫布』라 記寫할수잇음은 旣論을 기다리지안는다.『紫』의『지뵈』라 推定함에 無理는 업스리라 생각한다. 前間氏는『質背』를『조시뵈』라읽고,『그롯 紫色布의 뜻을 聽取한것이라』하나 (同氏『鄕辭考』九五頁), 或은 速斷이 아닐까. 假令『質布』가 布의義를 包含하엿다하드래도 그것에서 轉하야 形容詞가 된것이라 생각한다.

○

암헤도 引한 安民歌의 第五句— 窮理此大肹生以支所音物生 을 小倉氏는『굴人댈 生으로될바인 物生』이라고 읽엇스나, 實로 難解를 極한 珍奇한 構文이다. 窮字의 古音은 窮字訓語 (月印第一·五十二葉) 에서 보는바와가티『궁』이므로『궁』로 靑讀할수는 업다. 穀物을 斗斛할때 使用하는『굴人대』가 最古代語인것은 姑舍하고 大鼎이 무슨뜻인가? 漢字解釋上 意味를 굴人대에 附會하여도 意味는 一層晦澁하다. 鄙見에 依하건대 窮은 古訓『구무』穴이 訓의 意義인것은 遺事의 窮字用例 (穴窮, 洛山窮等)으로 推知할수 잇음)요 따라서『窮理此大肹』는 아마『구믈그리대』(『대』는 現今의 비정대、성화대、북적대等의 대인데, 구믈그리의 그리와 相通함)의 音寫로 解할것이오, 意味는 前述한『丘物叱』『丘物比』과가티『屈崙』이나 그밋의『物生』의 形容詞라고생각한다.

新刊紹介

▲藝術 新年號 京城府中林洞二二五 藝術社發行 振替京城二三二六五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好鍊 第八號 開城府滿月町六○九 好壽敎女子高等普通學校友會發行(非賣品)

▲朝鮮興信錄 第六十三號 京城府旭町二丁目一○ 朝鮮興信所發行 定價一年六圓(每月三回發行)

▲新朝鮮 新年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三 新朝鮮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四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京城敎育情報 第三號 京城府臥龍洞一三九 棠明社內 京城敎育情報社發行 振替京城二二六八九番 定價一部十錢

▲自力更生彙報 第二十八號 朝鮮總督府發行 定價一部五錢 發賣所 京城府南米倉町一五九 行政學會印刷所

▲아이생활 新年號 童話特輯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發行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五厘

▲農村父光 第三十三號 京畿道地方課內 京畿道發行 定價一部二錢

▲新化粧品小間物商報 新年號 京城府大和町二丁目七ノ一 滿鮮化粧品小間物商報社發行 振替京城一五一○二番 定價一年一圓

營口

營口農村 農務稧聯合會 會長 愼宗守 理事 韓嚴國 會計 李甲鎭 書記 申興福

櫻井伊左衛門

營口新市南本街號外 滿洲料理 朝鮮料理 同樂館 主 朴雲仙 名妓 朱永信 同 羅月仙 名唱 李世和

營口農村三成醫院 李源宗

營口新市北本街 遼河館 主 金柄奎

營口北本街 營口金融精米所 電話長七○七番 電略キヌハ(キン)

南本街 朝日醫院 京城醫學士 奇能權 電話一科四三醫四番院

營口北本街 營口朝鮮人民會 會長 劉龍起 理事 梁周鉉

營口北本街 營口金融會 會長 白元保 理事 崔豹卿 副理事 室津良平

營口縮大石橋 朝鮮人民會職員一同 (電話一四一番)

營口田莊台街 農具肥料 米穀雜貨 田台商店

營口田莊台忠義街 綢緞布木 日用雜貨 各種고무 新昌商店 主 金瑞鳳

營口新市街北本街 信義號精米部 主 李丙斗

三信精米所 電話長一○七一番 私書函三○號

營口新市街八舟街 金亨宇

營口新市北本街一六八號 綢緞布木 各種雜貨 金星商會 呼出電話一○八七番

營口北本街 共益公司 洪一河

營口北本街 李春仙

營口縣約家堡子農業 黃文吉

營口市南本街 絹綿布 各雜貨 新盛商會 電話一三五三番

營口市南本街 朝鮮旅館

營口市南本街 營口商會 鄭時鼎 電話八一一番

營口新市南本街號外 白坤煥

營口二本町 大成商店 主 趙元在

營口二本町 白米及雜貨商 三省號 電話二○四番

營口二本町 山加洋行

營口市北本街 穀物委託 白米販賣 自動運送業 南滿公司 白子賢 電話一三七一番

營口二本町 委託販賣 資料米 東京公司 電話二八四番

營口二本町 金再杰代書所

營口田莊台 綢緞布木 日用雜貨 各種고무 龍川商店 主 李洛興

大平廟里古物街五二 李萬秀

營口田莊台 朝鮮料理 田台館 主 李元昌

遼京線大石橋自陽街五二 金鎭奎

營口永世街二本町 德順洋行

營口市北本街 朝鮮[illegible]館 電話一○八七番

撫順

撫順東二條通六七番地 穀物貿易 委託販賣 兼精米業 協成商會 電話長二二○三番 電略(キヨ)

撫順東一條通 精米精選 穀物貿易 委託賣買 大同精米所 電話二四○六番

撫順普通學校 校長 石原貞次

撫順朝鮮人民會

撫順西一番町 綢緞布木 和洋雜貨 新光洋行

撫順千金大街 團體歡迎 客室完備 蓬萊旅館

撫順千金大街 白米雜穀 日榮商會 主 曹榮煥 電話二九二六番

撫順東一條通六四 和洋雜貨 各種鞄皮 海陸物産 三省洋行

濟衆醫院 院長 金鎭英 電話二九一四番

撫順東一條通 精米業 協泰公司 電話三○三番

撫順西五條通 白米小賣 合資會社 義州商會 電話二九四三番

撫順東四條通 朝鮮文 旬刊 撫鮮旬報社 電話二六三八番

南滿洲撫順糧棧街 穀物貿易 委託賣買 及精米業 義順盛精米所 電話長一四三九番 電略キ(又ハ)セイ

撫順糧棧街二五番地 盛順昌精米所 鄭啓賢 長電話二三九四番

撫順新村町三六 御料理 明月 主 金國成

撫順西二條通 泰盛商店 泰盛藥房

東京金庫株式會社代理店 和洋雜貨 各種金庫 撫順商店 主 李東璿 撫順西三番町七

鐵城商會 李泰盛 電話二七三二番

天一公司 文亨奎

撫順東四條通 亞細亞社 李英一 振替奉天二一一七番

朝鮮日報撫順支局 李英一 梁達浩

永川

琴湖面元基 曺圭燮 曺圭信

花山面公立普通學校長 李貞燮

花山面釀造場 李根善

永川錦田 鄭東鳳

永川邑 素麵、精米、食鹽、酒類、雜穀 金炳基

淸通面 銀海寺住持 朴度洙

永川邑司法書士 文尙琦

永川邑 尹益壽

永川邑 李星球

大昌五去 曺圭輯

琴湖市場 漢藥局 楊達祚

新光 酒造場 蔡潤基

琴湖 和信連鎖店 安晶煥

道林 酒造場 尹聖永

華北三昌 曺奎卨

慈川 酒造場 殷成道

華北慈川 全炳夏

琴湖市場 穀物商 權上洛

大昌面協議會員 曺圭珍

琴湖元基 曺圭桓

院村 酒造場 李光白

知谷 酒造場 曺箕煥

⊙永川代行營業所 金鎭秀

淸通新鎭 田任達

貨賃貨物自動車部 河壽得

永川 百貨商 李禎容

新寧 華東藥局 權五信

永川邑 米穀商 曺秉海

永川邑西門通 孫龍增

永川邑南門通 고무工場 兪源根

淸道面 大東山 銀海寺

永川邑 穀物組合

華北面仙川洞 楊永暾

大昌面鼎芝寺住持 車應俊

慶北道會議員 曺由煥

永川郡面長一同

永川土曜會

大昌面鼎川 盧致容

永川邑中央通 安川洋服店

永川邑 朝陽自動車會社 代表 曺由煥

永川邑 中華料理三昇館 李正泰

新寧金融組合理事 安太元

臨皐醫院 郭鍾林

永川邑司法書士 朴振榮

臨皐仙源 鄭淵睦

永川邑 朝陽醫院

永川自轉車店 朴渭俊

永川邑南門通 沈坤伊

永川邑學校評議員 金琮漢

永川城內洞 金周善

華北安川 鄭淵浩

永川邑丸京屋染工場ペンチンクリーニング 安相善

永川邑東門通大商 鄭鎭日

新寧邑不老藥酒製造元 新寧酒造場

天一고무社李東仁永川支店 金南述

新寧面華南 權五龍

新寧公立普通學校長 玉木淸一郞

華北仙川 曺晟煥

新寧邑 黃東重

也史洞 穀物商 鄭光五

東明寫眞館主 李璟活

食鹽及百貨店 張俊明

果田洞振興組合長 崔吕壽

大昌酒造場 石圭元

琴湖市場通 金武顯

琴湖市場通 申桊益

琴湖水利組合 李沅桂

花山面 永川學校評議員 曺奎榮

黑風 【225】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참사랑 (九)

「그만치하고 고만 뭅시다 나는 내사정이 잇스니까 차차 아라하지오 황선생님의 주소나 자세히 적어주시오 내가 가서 뵈옵든지 그러치 아니하면 편지로 사롭든지 할터이니」

「당신이 쾌히 승락을 한다면 몰라도 그러치 아니하면 황선생님의 주소를 자세히 일러드릴수가 업소 필요가 업스면 가튼 당원끼리도비밀을 말하지 안키로 되야잇소 또 편지로하는것은 불가하오 지금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에게 래왕하는 서신에 대하야는 조사가 여간이 아니오 우편으로 서신 왕래를안는것은 물론이고 인편에라도 서신은 금물이오 그래하야 내오는 편에도 황선생님의 편지를 아니가지고 온것이 그 까닭이오 하여간 가티 나가서 일을합시다 황선생님은 당신에게 여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아닙니다」

그 사람의말은 조금도 꾸미는것이 업시 솔직하야서 도로혀 왕한에게 호감을 주엇다

「그러케까지 말슴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부를 확실히 말슴할수 업슨즉 미안하나 용서하십시오」

하야 정답고도 미안한 뜻을 표하얏다

「그러면 고만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철회합니다」

하는 그사람은 뒤도 도라보지 아니하고 선선히 가면서

『그럼 평안히 가시오』

하는 왕한의말도 대답하지아니하얏다

왕한은 그사람의 가는 뒷모양을 보면서 집에로 도라오는 길에 조금 스스로 부끄러웟다 자기가 그사람에게 대하야 두동지게 말을 한것은 혁명에뜻이업서서 그래 한것이 아니라 창순이를 사랑하기에 참아 떠날수가 업는것을, 아직까지 창순이도 모르고 자기 혼저 압고잇는 사정이언마는 안해에게 침혹하야서 국가사회를 위하지 안는다는것은 아모리 자기를 스스로 용서한대도 정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할수가 업는 까닭이엇다 그러나 평일에 그러한 가부 문제에 대하야 마음이 괴롭도록 생각해본일이 업는것은 아니엇지마는 언제든지 리지가 감정을 익이지 못할뿐아니라 그려한 감정이 점점 습관을 이루어서 인생철학이라고 할만한 근본관념의 꼭지도 흔들이기 시작 하얏든것이다 그리하야 혁명운동이라는 말을 드를때에 원대한 뜻과 웅장한 기운이 산가티 솟엇지마는 한생각이 도리키는 순간에 다 솟지 못하고 애정에 잠겨버린것이엇다

창순은 어느 알지못하는 사람이 와서 왕한을 다리고 나감으로 무슨일인지 궁금하야서 집근처의 나무그늘에 의지하야서 그들의 바위위에서 무슨 수작을 하는것을 바라보고 잇섯다 무론 그들의 말소리는 드를수가 업섯스나 그들의 표정이라 동작에 나타나는것을 보랴고 하얏다 그러다가 그들의 수작이 쩌른시간에 마치고 서로 헤여지는것을 볼때에 도로혀 호기심을 일코 다시 채소밧흘 살펴보다가 길로 나서서 도라오는 왕한을 마지면서 왕한의 기색을 살펴보앗다 왕한의 기색이 화평하고 쾌활하지 못한것을 보는 창순은 다시금 이상한 생각을 가젓다

「그게 웬사람이여요?」

하고묻는 창순의말에

「차차 드러가서 이야기하지」

하고 명랑하지못한 말소리로 대답하는 왕한은 머리를 숙이고 집으로 드러간다 뒤를따라 드러가는 창순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얏다

「그게 웬사람이여요?」

방에 드러가 안지면서 다시 뭇는 창순은 유심히 왕한의 안색을 살피엇다

『황국강에게서 온 사람이어』

『황국강에게서? 황선생이 지금 어대 게시대요 그런대 어찌 왓서요?』

창순은 그사람이 황홍에게서 왓다는말을 듯고 궁금하던 소식을 듯는것으로 반갑기도하고 무론 혁명운동에 관한일이라고 생각되야서 마음이 새롭기도하얏다

라디오

十四日 (火曜)

◇午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獨逸(一)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有敎無類 儒敎會幹事 張爀
◇同七時三〇分 講演 理想과現實 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男唱지름 三、창내고자 四、푸른산중 五、小春香歌 六、개타령、 李寶貝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支那海 李承雨
細竹奏 洪鶴洙 洪桃花
◇同九時 歌詞 一、白鷗詞 二、乾坤歌 李日色 金鳳仙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라디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名) 農村經營の成功談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時 三曲合奏
◇同八時二〇分(大) 義太夫
◇同八時五〇分(東) 立體漫談

十五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제비가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平壤歌 四、달거리 五、제비가 金泰運 崔蓮香
◇同一時一五分 營養講座(三) 食物의呼收 梨專敎授 金浩稙
◇同六時 獨唱과피아노獨奏
一、새울고 해빗 빗나는…피리스作曲 二、향나무…슈-베르트作曲 三、어머니뵈오니포스터-作曲 四、메누엘G短調 베-토-벤 五、나폴리民謠… 마로 六、자장가…슈-베르트 伴奏 申淑皇 尹聖德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愼獨의工夫 李明世
◇同七時三〇分 講演 上級學校의撰擇 普專敎授 金興濟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가)沈淸歌中 林塘水로가는데 (나)赤壁歌中 활쏘는데 金彩蓮 韓成俊 鼓手
◇同八時三〇分 狩獵漫談 異常한捕手 金一笑
◇同九時 名曲鑑賞(레코-드演奏) 紋樂四重奏(레-너紋樂四重奏團) 紋樂四重奏曲 에 長調…하이든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樂章아다지오·칸타빌레 第三樂章메누엣토 第四樂章프레스토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婦人講座
◇午後〇時五分 狂言
◇同二時(東) 家庭講座 相撲
◇實況
◇同六時(東) 어린이歷史
◇同六時二五分(名) 農村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落語
◇同八時二五分(東) 歌舞曲
◇同八時五〇分(大) 浪花節

十六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鄭柳色 金柳鶯
◇同三時一五分 趣味講演 눈(目)이야기 羅元和
◇同六時 童話 참된勇者 高長煥
◇同六時二五分 講演 哲學興趣 卞榮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特許公報에發表된朝鮮人의發明品 金容瓘
◇同八時 獨唱 一、들장미…슈-베르트作曲 二、그대의눈을볼때…슈-망作曲 三、사랑의노래…브라-므스作曲 四、日曜日…同 五、저녁…프란쓰作曲 六、小夜曲…同 鈴木美佐保 諸澤 레쓰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九時 古談 周鼠嘆 愼麟範

曆

一月十五日(水) 十二月(己丑)(小)廿一日
丙申·火·箕·危
●祭祀에宜함
●小寒六日(陰十二日)
●大寒二十一日(陰二十七日)

謹賀新年

密陽

慶南密陽郡初同面新月里 朴熙元

慶南密陽郡丹場面九川里 吳應石

密陽郡職員一同

密陽邑三門里 密陽種苗園 孫祥植 振替口座釜山七八九〇番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優良藥酒 洛陽 三浪酒造場 李完熙 電話三浪津六番 振替口座京城一二四一六番

密陽邑三門里 優等藥酒 嶺泉 密陽酒造株式會社 代表社員 河翰錫 電話一〇一番 一二七番

密陽郡府北面退老里 優良藥酒濁酒 退老酒造場

密陽郡丹場面丹場里 許涉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洛東江運輸合資會社 電話三浪津六番

密陽守山市場 下南精米所

密陽郡府北面退老里 李翼成

密陽郡府北面大項里 朴熙秉

密陽邑 密陽鑛山 榎本德太郎

株式會社 大邱商工銀行密陽支店 電話二一番

尋常高等小學校 密陽公立普通學校 農蠶學校

密陽料理屋組合

密陽邑 御料理 不老園 代表 李光洙

密陽邑 甲種料理 嶺泉館 金鍾祚

密陽邑 中華料理 太陽館 電話一二四番

密陽郡山外面 山東產業組合 組合長 安秉達 理事 [illegible]

三浪津金融組合 專務 鄭甲守

慶南自動車株式會社 密陽營業所 電話四一三〇番

密陽運搬合資會社 電話六五番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穀物貿易 金相元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穀物貿易 朴智鳳

京釜線密陽驛前 株式會社 密陽精米所 電話七番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綢緞布木商 孫性珖

京釜線檜川市場通 百貨店 三成商會

密陽郡淸道面 九奇酒造場 金泰誠

密陽郡武安市場 優等藥酒 金冠 武安酒造場

密陽郡武安面 面長 具榮書

上南面禮林里 李門參貿易商 黃應水

密陽郡府北面 安秉奇

密陽郡山內面 朴升錄

府北面退老里 李瑀衡

府北面德山里 薛鎭瓚

淸道面小台里 金泰鉉

上南面東山里 閔泳駟

上南面祺音里 李秉烈

府北面退老里 李樞成

府北面春富里 安秉熙

三浪津驛前 趙亨植

三浪津面三浪里 金泳胤

三浪津三浪里 池大弘

初同面馬里 安碩倫

初同面新湖里 朴熙萬

初同面新湖里 朴錫奎

初同面帆平里 鄭得義

初同面半月里 鄭相道

密陽邑 朴五作

山外面金谷里 東山醫院 金浴綏

密陽邑長 牧島國五郎

密陽郡淸道面 面長 金相鉉

密陽郡三浪津面 面長 金想均

密陽農業倉庫 朴起珣

三浪津金融組合 理事 宋淳生

密陽邑 綢緞布木 東永盛

淸道面九奇里 春山醫院 朴在興

密陽郡醫師會

京釜線三浪津驛前 土木建築請負業 吳錫鎬

京釜線三浪津驛前 慶南桑苗組合 副組合長 丁碩倫

金海郡生林面安養里 鄭永泰

密陽郡上東面 裵翰增

密陽郡上東面 金日壽

密陽郡武安面 朴晉杓

密陽穀物商組合 理事 李雨衢

密陽邑 穀物貿易商 崔鳴珌

上南面禮林里 穀物貿易商 金興基

上南面禮林里 穀物貿易商 中村九蔵

密陽邑 土木建築請負業 戶田組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川渡藤太郎商店

京釜線密陽驛前 ◉密陽運送會社

密陽郡山內面 松栢酒造場

京釜線三浪津驛前 鐵道旅館 毛里多家

京釜線三浪津驛前 料理屋 松樂亭

密陽警察署

密陽邑三門里 密陽麵子株式會社

朝鮮瓦電密陽出張所 神代和一

密陽城內郵便所 泉昇

密陽東拓勤農貯蓄組合

密陽郡郵便所 上妻壽三郎

古場

委延面職員一同

平北雲山郡委延面溫井 日本鑛業株式會社 溫井建設出張所

溫井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平安北道雲山郡委延面溫井 株式會社 柴田組出張所

雲山溫井 雲延醫院院長 金志守

平北雲山郡古場市 鄭炳涉百貨店

平北寧邊郡泰平市 司法書士 申澤均事務所

平北雲山古場市 燒酎製造業 延東商會 電話(エン)又六(ㅏ) 振替京城一八二六〇番

雲山郡東新面佐洞 石墻站夜學堂 劉應漢 金利福

平北雲山郡北鎭面古場市 元濟醫院 院長 金洛元

平北雲山郡東新面古場市 三世醫院 院長 成炫奎

平北雲山郡古場 O.K俱樂部

泰川郡江東面 三一醫院 院長 咸亨燦

平北道會議員 白亨道

平北雲山郡古場市 綿布雜貨商 徐桂植

平北雲山溫井 司法書士 尹一善

平北雲山郡溫井 橫山溫泉 橫山半四郎

平北雲山郡溫井 副理事 金禮善

平北雲山郡古場市 綿布雜貨商 金亨植

東新面長 鄭基泰

平北雲山郡古場市 綿布雜貨商 洪洛永

平北雲山郡溫井 李昊榮

平北雲山郡古場 洪洛淳

平北雲山郡溫井 片山淸泉 片山春次郎

平北雲山郡古場市 昌興金物店 主 趙祥律

楚山郡 桃源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楚山郡桃源面館堂市 綿布雜貨商 孫利濟商店

楚山郡桃源面 面協議員 李大源

雲東公立普通學校 校 鄭乾

平北寧邊郡泰平面蓮山洞 鐵工 主 鄭洛里

平北雲山郡溫井 金銀細工 金銀寶貨 申泰廷

平北雲山郡古場市 延東商會代理店 主 李宗高

平北雲山郡古場市 玄致俊

楚山郡 桃源面事務所 職員一同

楚山郡桃源面 面協議員 李元伯

楚山郡桃源市 綿布諸雜貨 梁泳三商店

平北楚山郡桃源面館堂市 雜貨商 李昌伯

楚山郡桃源面 面協議員 李始逵

楚山郡桃源面館堂洞 區長 申善得

堤川

堤川邑 釀造業藥酒 官鹽穀物貿易 海陸物產都賣 雜貨目 金東基

堤川郡邑內 道評議員 張俊英

堤川淸風醫院 公醫 李殷柱

堤川郡廳

淸風公普校職員一同

松鶴面事務所 職員一同

堤川邑部里 綢緞布木 向信商會 主 申錫鍵

堤川邑西部 嶺泉醸造場 主 金鎬培 電話一六番

堤川郡邑內 蠶桑組合

堤川郡邑內 日新館 申弘奎

堤川郡長 李觀儀

東源洋服店 主 崔□淳

堤川郡邑內 朝鮮料理 明月館 鄭泰會

堤川警察署 署長 秋谷三郎

永春金融組合 理事 李昌榮

水山面事務所 面長 劉永甲

鳳城公普校 校長 岩槻鷹美

堤川郡鳳陽面 職員一同

淸風面事務所 職員一同

松鶴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淸風邑里 韓永源

北一旅館 金夏錫

淸風醫院 申星均

堤川郡邑內 三中商會 鄭慶浩

堤川郡邑內 信興洋靴店 尹滋務

忠山面協議員 金在鉛

竹內秀男

堤川郡邑內 精米業 林淳泰

堤川郡邑內 綢緞布木 主 吳曉宰

堤川邑部里 綢緞布木 主 金東旭

綢緞布木 金東華商店

平安旅館 主 李明華

支那料理 大盛館 主 姜興周

七星藥房 金斗緖

堤川郡邑內 精米所 李壽弘

堤川郡邑 藥種商 李錫年

稀有의大凶獲으로 明太價急激昂騰
每駄卅一圓에서五十餘圓에 漁村經濟에重大影響

【新浦】함남연안의 특산물인 명태어(明太魚)가 지난동지(冬至)이후부터 긔후의불순과 바다조류(潮流)의 관계로 만히잡피지 안는다는바 어업에 의탁하여사는 어민은 목하 공포에싸혀잇는반면 가격의앙등으로 리익을보는사람도 적지안타 금년도 어획고를 본다면 작년의 오분지이에 불과함에따라서 동지이후부터는 명태가격은 대폭등되야 매태(每駄)의시가는 다음과갓다

	冬至前價格	冬至後最高價格(十二日現在)
釣小太一駄價	三一圓	五二圓
釣大太一駄價	五〇圓	七二圓
網太一駄價	無	五九圓

白川蹴球團創立

【白川】황해도백천에서는 일반의체육운동을 장려하기위하야 지난십일일오후팔시부터 배천공보교내에서 림시의장 오필상(吳必祥)씨의 사회하에 배천축구단의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토의한후 무사폐회하엿는데 선임된역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團長 吳必祥 ▲副團長 張鉉泰 ▲理事 金元七 薛福俊 吳耕林 鄭尙鎭 張鳳榮 ▲顧問 劉在賢外九人

筏木流下難으로 建築界에大影響
◇……昨秋以來旱魃繼續으로 年事의憂慮도漸濃

【平壤】서조선지방일대에는 금년겨울에 강설(降雪)이 업섯기때문에 량맥(兩麥)이 전부동결하여 수확에대한 우려가 크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작년가을이래의 한발은 금년의 전반동작에대하여 큰우려를 가저오고잇슴은 물론이며 더욱이 령원(寧遠)영림서에서 벌채한 벌목(筏木)이 대동강물의 감소로하류에 띄워오는데 큰곤난을 늣기게될 모양으로 이러케된다면 평양 건축계에도 큰이상을 일으키게되엿다한다

路上强盜事件 被疑者一名逮捕

【江西】지난십일에 강서군 쌍룡면 운포리(江西郡雙龍面雲浦里) 정모(鄭某)의 처가 강서우시장(江西牛市場)에서 소한머리를 파러가지고 집으로 도라오든도중에 백주로상에서 강도가나타나서 가젓든돈을 강탈도주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잇거니와 그신고를바든 강서서(江西署)에서는 강사법주임(義新法主任)이하 수십경관이 총동원하야 비상선을 느리고 수색중이든바 지난 십일에 강서군 동진면룡정리탄광(東津面龍井里炭坑)에서 피의자 한명을 잡어 취조중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보매 진범인듯하다고 한다

五十餘老人에게 따스한그릇 女性同友會의猛活動

【鎭南浦】더위가오거나 추위가오거나 아불관언의태도로 지내는 유산계급이잇는반면에 먹을것을 먹지못하며 입을것을 입지못하고 도로에 방황하는가련한 동포가 진남포부내에만도 그수가 얼마인고! 더구나 금년은 일긔도 매우칩고 구변말이 발부한이때 그네들에게 한때의 따스한 국밥이라도 대접하고저 진남포녀성동우회(女性同友會)에서는 그대책을 강구중이든바 륙십여명회원이 일원이상의돈을 모아 진남포천주교신부 서이량(徐伊良)씨가경영하는 양노원(養老院)에 수용되여잇는 오십여명의노인들을위로하여드리기로되여 서상덕 박영복 엄봉희(徐相德 朴永福 嚴鳳姬)등제씨가 각회원을 방문하야 금품을 모집중이라는바 동양노원도 서신부의단독경영이든바 서신부가 귀국이래경영자가 변경되면서 경영상곤난한모양임으로 일반사회의 뜨거운 동정이 필요한 형편이라는바 금번녀성동우회의 뜨거운 동정은 일반의 칭송이놉다고한다

◇―銀世界일운牧丹峯公園(今冬들고처음大雪)

洞民의同情으로 難産婦를救助

【泗川】극빈한임신부로 먹지못하야 영양부족으로 난산에일으러 사경에빠진산부를 동민의뜨거운동정으로 구제한인정미담 경남사천면 룡당리(泗川面龍塘里) 박긔수(朴基守)의처 김성녀(金性女)(二七)는 임신 중이든바 지난십이월이십구일부터 해산긔가 잇섯스나 원래극빈한가계로 먹지못하야 영양이부족되여 련삼사일간을 난산에신음하여 사경에 직면하고잇는것을 동리구장윤긔헌(尹其憲)본사사천지국고문최병민(崔炳敏)씨외 수씨의발긔로 현금삼십여원과 백미일두등의동정금품을 거출하여 사천수영의원황의사(順榮醫院黃醫師)를일일일일에 청하여 해산을시기는동시에 산모구제를 한결과 태아는사산되엿스나 산모생명은 구제하엿다고한다

釜山에出現했든 路上强盜就縛

【釜山】지난 십일오후 구시경부산부범일정(凡一町) 삼화고무회사(三和고무會社)부근 로상에서 부내범일정사는 과일상 석덕술(石德述)(三七)이가 통행중 돌연히 일괴한이 낫타나저 소지금 십원오십전을 강탈하야가지고 도주하얏다는 급보를 접한 부산경찰서에서는 수일전에 밀양군에서 생긴 강도살인사건의 수배를 밧고 잇는중이라 동서 암전 수사계주임(岩田搜査係主任)이하 형사대가 총출동하야 각처로 범인체포에 노력하는동시에 부내 각교반소에 전화로서 범인체포의 수배를 하는등으로 맹활동을 개시 하엿든바 익일인 십일일오후 부내남빈정에서 거동이 수상한자를 인치하야다가 엄중취조한결과 전긔범인인것이 판명되엿는데 범인은 부내대신정(大新町)사는한우상(韓禹祥)(二三)이라한다

機重機故障으로 荷役人夫重傷 船會社側責任을廻避

【鎭南浦】지난십일오후 두시경진남포에 입항중인 대판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소유사천환(四川丸)에서화물을 하륙하고잇든당지 삼화조(三和組)인부 박각호(朴覺浩)가 동긔선의 하륙용긔중긔(機重機)의 고장으로 중상을당하여 방금생명이 위독하다는바 금번의 사고는 그책임이 어대잇느냐하는것으로 분규가생기여 쌍방의태도는 매우강경하다는바 삼화조측의 주장은 그와가티 큰회사의상선으로 연중 긔계의 고장이생기여 사고를 이르킨것이니만치 당연 그책임은 긔선회사에잇다하고 긔선회사측에서는 긔선으로서는 완전한 설비를하엿스나 인부들의 부주의로 이러난 사고이니만치 그책임은 삼화조에 잇다고하며 당방의해석은 갈수록 정반대로 되여 사태는 매우 주목되는바 인데 긔계의고장으로 생긴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이나 대리점 청목조(靑木組)에서까지 전연 책임을 회피한다는것은 경위상으로보나 인정상으로보아 용납지못한 행동이라고하여 일반의 비난이 놉다는바 장차 문제가 어떠케나 해결될는지 매우 주목되는바라고 한다

敎育界의二特志 一般의稱頌藉藉

【三千浦】경남삼천포읍 향촌(香村)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사변전에 당지청년의 열성으로 야학교를 설치하야 문맹에우는 어린이를 가리키다가 당시 삼천포유간동촌 야학교에 당국의폐쇄명령으로 폐쇄를당하고 한동안 정체상태에 빠젓든바 문맹에허득이는 어린이들의 비경에 특히류의한 당지유지 리병긔(李丙基)씨의 발긔로 자긔부터 금팔십원을 희사하고 또당지유지 최홍갑(崔洪甲)씨의 삼십원긔부와 지방유지제씨의 의연으로 교사를신축하고 인가원을당국에 제출하엿는데 작춘에설립자 리병긔(李丙基)씨 명의로 향촌사설학술강습회(香村私設學術講習會)가 인가되여 이래아동백구명을 가르켜오든중 금번에와서 동교의 부지주인공인 경성부락원동 이백이십일번지 리진오(李鎭五)씨가 동부지이백평을 동교에 희사하엿다는바 일반사회인사들은 전긔학당의 상특지에대하야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酒造業者大會

【居昌】거창세무서에서는 지난칠일을기하야 관내주조업자와 곡자제조업자전부를 소집하야 중길서장의 훈유가잇슨후 신임 전간세과장(田間稅課長)의 명령사항의 개정과 지시사항의 설명이잇슨후에 동일오후오시에 산회하엿는데 주조업의 개혁상 일신긔원이되리라한다

◇……會寧料理組合員一同(昨日記事參照)

興南公立普校 學級增設實現

【興南】신축직후부터 중요문제를걸고 그간이대(二代)의 후원회역원들의 필사적노력은 때를따라 본보에루보한바어니와 특별히 금년도신입역원들은 신임이래 십여개월을 오로지 교사의증축과 학급증설에 힘써와다 그러나 그활동이 어듸까지 주효될것은 일반에 의문을 품어마지아니하든바 지난십일 학주군수와 동내무주임이 해교에 출장하여 지급역원회가 소집하고 그동안 경과를정취하는등 여러가지질문과 여러가지협의를 행한후 후원회회장으로부터 역원일동을 대표하야 전부책임을현간부일동이 서서할러이니 긔어히 우리들의 초지를 알어달라 진정한결과 당석에서 위선명년도신입학생부터 두학급 일백오십명을 모집시키겟다는 명언을엇게되여 이에 흥남의 큰문제이든 학급으로 완전한성을 보게되엿다한다

貯蓄契를組織 禁酒斷煙하고

【淮陽】회양군란곡면신평리일구(淮陽郡蘭谷面新坪里一區)에서는 구장주수만(區長朱秀萬)씨의 발긔로 금주단연회를 조직하고 주초에 소비될 금액으로 매월각자 이원식 모아가지고 저축계를 조직하얏다한다

飢寒을참다못해 夫婦가一時凍死
남은두어린애의情景이더悲慘 伊川郡下에생긴哀話

【伊川】가난에쪼들리여 세끼의밥을 어더다먹으며 어린것 들을다리고 네식구가살다가 그만추위에 못이기여 굼주린창자를 웅켜쥐고 내외가그만 죽엄의길을 것게된 가엽슨예화가잇다 본적을 강원도철원군내문면내문리(鐵原郡乃文面乃文里)에두고 일정한 주소가업시 이천수리조합 공사때에 와서 저수지근방에 조고마한 움막을 짓고살던 정길손(鄭吉孫)(三六)과 그의처 리씨(李氏)(三七) 두사람이 이번추위에 어려죽엇다는데 슬하에는 철모르는 열두살 여덜살된 두딸을 남기고 그만 황천의길을 것게되엿스므로 어린것들은 부모를잃고 눈물을 흘니며통곡하는광경은 오고가는 사람의옷깃을 적실만하엿다하며 시체는 이천면신당리(伊川面新塘里)사람들이 매장하고 어린아이들은 친척의집으로 돌려보내엇다고한다

順川地方에는 四十年來의冬旱 今年農形을벌서憂慮

【順川】평남순천지방에는 작년가을에 약간의 강우가잇슨이후로 대소한고비인 오늘까지 한번의 강설도업섯기 때문에 대소맥농에 타격이 크리라는바 가을보리 가튼것은 벌서 동사하야 전멸상태이고 길바닥에는몬지가 너무도만히 일러 통행이불시 불편타고한다 이러케 겨울동안을 통하야감을기는 사십년래의 처음보는현상이라하며 겨울한발이 여름한발이라는 속담도잇서 금년농사가벌서 매우 우려된다고한다

中等學校入學의 準備敎育을撤廢
釜山府初等校長會決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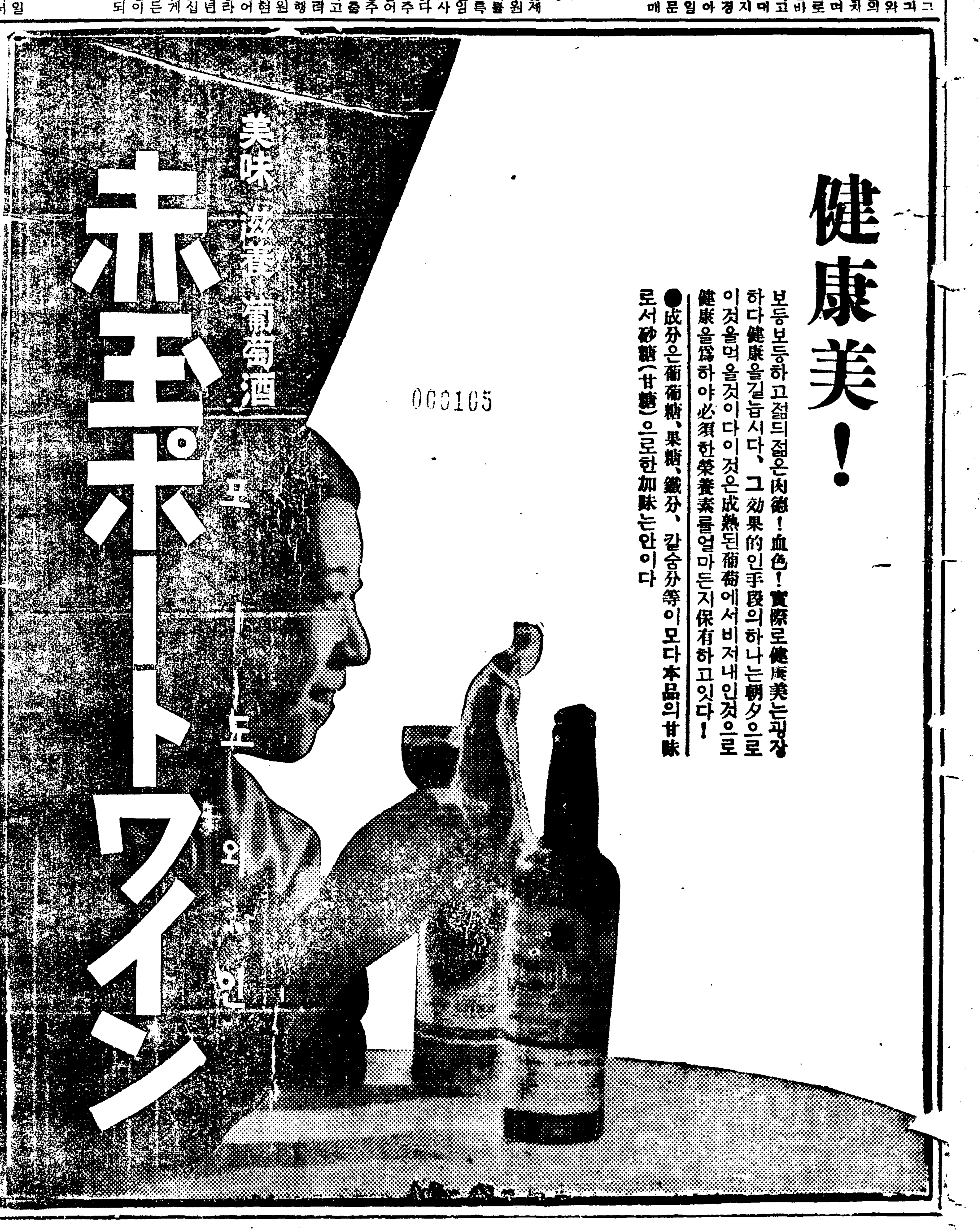
【釜山】매년 중등학교입학 시험긔가 임박하면 입학준비교육으로 연약한 어린아동들을 여간 괴롭게 하지안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발육상 여간 피해가 만치 안한데 부산부에서도 이피해를 어느정도까지 완화하기 위하야 지난십일 오전 두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부내 초등학교 교장전부를 소집하야 중등학교입학시험준비교육에 관한토의를 한결과 공휴일은 일체하지말것과 방과후에는 오후오시까지만 할것 또 교사의사택급아동의자택에 출장교수를 하지말것등을 결정하고 금후는엄중히 실행하기로 하얏다한다

家庭婦人講習盛況

【新義州】국경이가진특수한사정으로 교외사상이 전허등한시되

地方人事

▲桐畑來氏(瑞山警察署長)新任人事次大田支局來訪
▲李壽基氏(三井物産株式會社專務)去九日高敞自宅에서還內



一月十三日낮부터三日間大公開!!! 特選二大名篇滿都待望!!! 大衆料金椅子席25階上15、階下10 每日三回興行晝間二回午前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新興키네마社高田프로덕金超特作品全發聲版 牛原虛彥監督
現代劇 男三十前
高田稔、伏見信子 主演
學窓에서復雜한社會로!試煉!體驗!!男子三十前!勿論其中에는애달픈사랑도잇섯다그러나地位!名譽!압날의出世!이것을爲한鬪爭!斷腸에離別!哀愁에情緖를加味한悲戀에멜로디!드러라!보자!稔과信子의名篇!!哀愁斷腸名篇!!
猶乙네로超特作도바스映畫 名匠후릿·랑우氏 監督
探偵活劇 M(엠)
포-다-로-레氏 主演
全市에突然恐怖에포스다!犯人은누구냐?一萬圓의懸賞!全市를威嚇하는小女慘殺鬼!十八回째에!犯行全市暗黑!!警察은무엇을하느냐?猶乙에歡樂境伯林?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新春第四週特別封切 當る十五日堂堂大公開新興PCL三大名篇!!突如諸彥に捧ぐる!!!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二人の妻』より 中野實氏原作 監督成瀨己喜男
妻よ薔薇のやうに
千葉早智子、英百合子、丸山定夫、伊藤智子、大川平八郎、藤原鎌足 主演
日本映畫史はじまって以來世界的レベルと到達した映畫!!日本トーキーの最高峰!!見よこの問題の豪華作!
新興キネマ超豪級時代劇 原作川口松太郎 監督押本七之輔 オール・サウンド版
武藏野くづれ
大谷日出夫、乃松三津枝主演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川口松太郎 脚色陶山撈 監督曾根千晴 オール・トーキー
兒故の春
伊井友三郎(東都劇壇の雄)特別主演 伏見直江、高津慶子 共演 田中春男、小宮一晃、若水照子外 新興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演
劇界の問題の名作…今茲に映畫化されて加ふるに新興が得意の豪華配役を持つて諸彥の前に捧ぐる名畫
永樂町 電本二五二一
中央館

一月十二日낮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七時부터始映
果然!名讚을得하는이名篇!눈물은限업다 波蘭부로-크믓아社超特作哀傷篇全發聲日本版 監督요구스갈단
暴風雨(あらし)
職業處女의可憐한生活과虛僞의사랑의시달닌薄命한運命을呼訴하는一篇!松竹키네마社蒲田特作品을사운드版モダ日本所載 監督勝浦仙太郎、日下部章主演
水上心中
당신의가삼에다오르는情마마의烙印을눌너주는蒲田의名作을보섯는지?
찻푸린뿌란드特作爆笑篇 찻푸린自作自演
笑殺三段返シ
奇想天外찻푸린獨自의웃음과눈물의交響樂篇
仁寺洞 電光一六三
朝鮮劇場

十二日ヨリ十六日迄五日間特別封切 若草劇洋畫週間御入場料 階下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晝夜二回十二時半夜六時半始
パラマウント映畫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グレゴリイ・ラ・カヴァ監督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主演
白い友情
シャルル・ボワイエ ジョーン・バネット 助演
モ早全世界の女は毛むくじやらの男には飽きた人知れぬ惱みを胸に秘め澄んだ眼に憂ひを含め聲に哀愁を湛えて想ふ、コルベールと共演するボワイエの愛影なる魅力の凱歌!
パラマウント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ルイス・マイルストン入社第一回作品 世界一美しき歌姬メリイエリス主演、ツリオカーミナチ、アイダ・ルピノ助演
巴里は夜もすがら
P・C・L超特作第一回時代劇 オールトーキー エノケンブリヤント大熱演 榎本健一、一人二役
エノケンの近藤勇
二村定一、高尾光子、丸山定夫 夏目初子、柳田貞一 助演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畫劇場 電本二五四〇番

通貨安定問題
⑤ 英國現政策繼續

以上과가티 債務國의 經濟的으로 回復되지안흔데다가 「이러한 障害가 發生하고잇스니 卽 1、第一에 歐洲大陸에 政治不安이 增大하야 戰爭의 危險을더하게되엇다。

2、國際通貨制度의 崩壞는 其他의 諸原因과 相俟하야 一九二九年以來 各國의 經濟組織이 國際貿易의 發展을 不利케하얏다。政府의 諸統制가 經濟生活의 모든 領域에 及하야 從來의 價格에依한 自動的調整에 干涉을 加하고잇다。따라서 黃金本位制下에잇서서는 比較的容易히 할수잇는 經濟的 調整이 今日에는 困難하게되엇다 그럼으로 通貨安定을할지라도 高率關稅와 配當의發展、經濟的 國家主義와 計劃經濟의 副産을 업시하게 되어는 相當한 時間을 要한다。그럼으로 通貨安定에伴하야 生하는 主要利益인 資本이 潤澤한 地域으로부터 不足한 地域으로의 自由로운 資本流動은 貨幣의 移動만이 解放되어도 財貨가 移動할수업는事情이 잇슴으로 相當히 限制되고잇다。原料生産國의 食料及原料에對한 需要가 그리만치안코 또 債務國은 現在以上으로 債務負擔이 增加함을 즐겨하지 안홈으로 一國으로부터 他國에의 長期投資資金의 移動은 極히 徐徐하다。

3、磅과弗의低落結果 磅及弗과金블럭通貨間에 不均衡이 發生되어 磅과의安定을行함에는 먼저金블럭諸國이 更히떼프레숀을하던지 平價切下를行하던지 或은 英米兩國의物價騰貴에依하야 이不均衡이修正됨이 先決條件이다。

4、米國의信用機構及 物價水準의將來에對하야 不安이增大하얏다。華盛頓으로부터의 巨額의金流入、時代末期의 加盟銀行過剩準備、聯邦政府의巨額借入等의 諸事情은 同國의信用統制가 顯著히 困難케되엇슴을 示하고잇다。通貨問題에對한 現米政府의比較的便利한態度와 米政治組織의 缺陷으로 米信用機構의前途에 對하야서 疑惧라고까지는 안되지만 好奇의 눈으로써 보고잇다。英國이 一磅을弗에 確定한다하면 英國의信用機構 價格機構가 米國의 그것에 相結된다。그러다면 米國은 큰資源을 가지고 自給自足이 될수잇슴으로 相當히 動搖에 견딀수잇스나 英國은 그것에 견되지못할것이다。

5、獨逸의磅과 金通貨와어너 水準으로 馬克을 結局安定식힐가도 英國政界에잇서 困難이다。何時에던지 라이히스馬克의 制限을 撤廢하여야할것이다 將來再次獨逸産業이 英産業의 世界市場에 잇서서의 有力한 競爭者가 될것은 明白함으로 라이히스馬克의 過度의 切下에 絶對必要가잇다 고생각한다。

6、主要通貨의 安定에 對하야 昔日의 信用이 全혀消滅되엿고 그것이 크게注目할일이다。米國과 佛國이 巨大한 金塊準備를 가지고잇는結果、米佛兩國만이 責任잇는 行動을 自由로 取할수잇는 位置에잇고 英國에는 그自由가업다。從하야 現在以上의行動으로서는 例하면 金本位를 離脫하던가 換率的信用制限에 依하야 國內消費를 打破하는것가튼 危險을 要件이다。

×

以上과가튼 分析을보아 現在磅과金과의 關係를 比率로 定하야 金本位制에 復歸할것이아니오 當分間은現在 行하고잇는 政策을 그대로 繼續하야갈것이다 그러케하면 英國及스타ー링地域이라는 廣汎한 領域에 亘하야 相當한 爲替安定을 得할수잇다는 意見을 가지고 잇다。

勿論 나는 將來에 橫在한 障害를 過大評價하는것이 아니다。磅이나 弗이나 무어인지 알수업는 理由로 金平價 切下에 反對하고 잇는 國家以外에는 世界物價를 壓迫하고잇는 일은 最近은 업다。弗·스타ー링及 非스타ー링諸國에서는 物價는 徐徐히나마 不絶히 騰貴되고 잇서 信用도 膨脹되고 國內產業活動이 活況을 呈하는 一方 輸入도 增加코 잇다。그럼으로 萬若 英、米兩國이 各各 國內的安定을 得하도록 通貨를 管理하가면 現在의 主要問題는 이 二通貨間의 不安定보다도 이二通貨와 他通貨間의 不均衡에 잇다。

또現在世界貿易의 相當한 部分을 占한 磅에連絡잇는 諸通貨와 磅과의 間에 安定잇는 爲替市勢가 爲替取引 及 物資의 取引에 큰制限과 統制를 加치안코 維持되어잇는 일도 注目될것이다。

此等諸國間에는 貿易上 金融上에 一時的이라도 安定이 成立되어 爲替의 安定이 自然히되는것이다。英國은 이에對하야 될수잇는대로 比等諸國으로부터 만흔物資의 買入을 行하야 支持하고잇고 英國은 競爭的 利益을 得키 爲하야 爲替를 低下식히는것이 아니다。그러나 英國의 現在制度는 磅의 價値가 金의價値가아니오 그때그때의 政府의 能力에依存한다는 點에 缺陷이잇다。이點을 나는 管理通貨의 基本的 弱點이라고思한다(終)

不良水組地價도 普通倍以上暴騰
一例로坪一二錢이든것이廿錢呼價
現代地主는大資本家
米價高影響

米價의慘落으로 一般的으로經營難에 빠진中에서도 工事의不堅實 經營의放慢等으로到底히更生의道理가업는 六十八個組合中 五個組合은 廢止하고 其餘의六十三個組合은 國家補助의 形式과 組合債償年限延長、高利債借換等으로 大整理에 着手한것은 昨年五月이엇는데、昨秋以來 米價가 多少好轉하야 組合收支豫算의基準價로 石十三圓으로 決定을보게까지 되자 그동안 거이荒蕪地가티 보아오든 前記 整理區域內의 組合도 窮塞튼 經營難이 緩和되며 一般的土地景氣의 潮流를 따라서 地價는 從前보다普通倍以上이나 昂騰하엿다고한다。卽一例를들면 鐵原中央水利組合가튼곳은 組合設置前이 坪當四、五錢이다가그뒤 一二錢에까지低落되엿든것이 昨今에는十五錢乃至二十錢으로 十倍나 올랏고 普通으로는 坪當一、三十錢하든것이 五、六十錢씩으로 呼價되고잇는形便이다 整理組合의 蒙利區域은 乙種二十五組合에 二百七千二百四十一町步(國家補助形式으로 貸入補塡하는組合)丙種이 二十八組合에 三萬六千四百三十八町步(組合償債年限延長만 하는組合)인데、이것들은 這間 不良水利組合 이라하야 個中에는 地主들이 거이 버리다싶히 廉價로 亂賣튼것이어서 今日地主된 사람은 大概 土地經營上 資金의 餘裕가얼마간 잇는 大土地 所有者로 一變한터이다 그結果元地主들은 組合에서 一段脫落되고나서 새土地資本家들은 組合整理와 米價高에 兼하야地價의 恩澤을 입게되엇더이다

十八銀行支店
殖銀支店으로變更

殖銀의 十八銀行朝鮮內支店引繼에伴하야 新龍山、舊龍山의兩支店은 殖銀引繼와同時에 殖銀支店으로함을 內定하고 이미 그旨를 預金者、取引處에 十八銀行支店으로부터 通知를 發하엿다고한다

米國棉花統制法
◇…違憲訴訟은棄却
有効與否判決中止

【華盛頓十三日發同盟】聯邦大審院은 十三日正午휴스裁判長의司會알에 開廷하고 텍사스州棉作業者모ー다氏提訴인 빵크헷드棉花統制法違憲의 訴訟을 審議한結果 下級各審의判決을確認하야上告를棄却하엿다 그러나빵크헷드棉花統制法이 有効한與否에 對하야는 此際 判決을 中止한다고 宣言하엿다

人絹染工聯 再協定提議
朝鮮側에서對策協議

人絹染色加工業의 日本內地、朝鮮統制는 昨秋에 日本內地染工聯代表가 朝鮮에 渡來하엿슬때 兩者의 妥協이 못되엇든바 日本內地染工聯는 朝鮮業者의活躍에 威脅을 늣겨 一月下旬 다시 當業者代表가 朝鮮에 渡來하야 加工料金、生産數量의協定을 바란다고 提議하엿다 이에 對하야 當業者의 機關인 機業協會의 人絹染色部에서는 對策을 講究하랴고 十五日 午後一時부터 商工奬勵館에서 總督府로부터 石非技師、關口技手等도 臨席하야 協議會를 열기로 되엿다고 한다

朝鮮紡績業 懇談會
廿五日開催決定

朝鮮의紡績業은 目下能力三十萬錘를 內迫하고 또는 新計劃에依하야 더욱增大의 趨勢이다 一面 日本內地紡績聯合會에서도 關東紡績으로부터 朝鮮工場의 統制問題가 생기고 또 朝鮮產棉花使用 使用勞働者問題等 當面의 重要問題도 만흠으로 總督府殖産局에서는 過般의 產業懇談會에 繼續하야 一月廿五日總督府에서 紡績業懇談會를 열기로 內定하엿다 當日에는 鐘紡光州 東紡仁川 朝紡釜山 京紡永登浦의 各工場長과 關係者로 總督府殖産局關係가 모혀서 以上의問題에 對하야 懇談하랴는것이라고한다

堂島의新格付
朝鮮米는据置

【大阪電話商通】堂島取引所 四月限以後의 格付改正에는
一、朝鮮米를据置키로하고 日本內地米를 大體一、三十錢格上할일=이것은 前年受渡成績이 朝鮮米 五十八萬石 日本內地米九萬石이 今年은 凶作으로 日本內地米의 受渡可能米가減少할念慮가 잇슴으로 日本內地米를 優過할 趣旨에서 나온것이다
二、軟質米의供用限月을 五限까지延長하는同時에 古米의格差를 三、五十錢縮少하고 大體九限까지 供用할일
三、朝鮮米는 一圓의格差를붓처서受渡할은 可能
四、五等(豫備等級)米도 設置한府縣의產米는 모든受渡에供用할수잇는일
以上과가티 內定하고 當局에 申請하엿다고 한다

米國金銀輸入
昨年中顯著各增加

【華盛頓十三日發電通】米國商務省의 十三日發表에 依하면 昨年中 米國의 金銀輸入은다음과가터 前年度에 比하야 各六億五千萬弗의 增加를 示하(以下單位千弗)

◇…金
一九三五年 一、七四〇、九七九
一九三四年 一、一八六、六七一

◇…銀
一九三五年 三五四、[illegible]
一九三四年 一〇[illegible]

昨年夏秋蠶 飼育戶數
比前年三分徐增

【農林局發表】昨年의夏秋蠶飼育戶數는 五十七萬六千四百七十戶로 前年에比하야 一萬八千二百四十八戶(三分三厘)가 增加하엿는데 蠶種掃立枚數는 四十一萬六千七百七十五枚로 前年에比하야 二萬六千七百二十八枚(四分二厘)의增加이엇스나 產繭額은 六百六十二萬一千六百四十二瓩으로그前年에比하야 四十八萬五千四百十二瓩(六分八厘)의減少이엇다

新蠶種指定

農林局蠶業係에서는 벌서부터 新年度의 指定品種에 對하야 慎重協議中이든바 十一日付로 朝鮮蠶業令의 施行規則中 一部改正을 行하야 다음의 三品種을 追加하얏다 新品種
一、國蠶支十七號와 國蠶歐十九號交雜
二、國蠶文十七號와 國蠶文一〇六號交雜
三、國蠶日一一〇號와 國蠶文一〇六號交雜
으로 水原蠶業係에서 腐心生產한 新品種이다

三陟產業計畫
今後方針內容

三陟의解放은 舊臘末 新朝無에 正式鑛業權設定을 보는同時에即時 朝鮮及 日本內地에서의 異例인 鑛業權信託이 朝鮮電力株式會社 對新朝無間에 잇섯는바 三陟의 事業方針은 如左한 計畫으로할 豫定이다

予先 第一次的으로는 寧越로부터 三陟決澶線을 建設하는同時에 終端港의 築港工事三陟化學工場建設을 進行할터인데 此等은大體 一個年乃至三年間을 要한다 이리하야交通條件을 整備한뒤 二年째前後부터 化學工業을 各히 漸次的으로 起業하야 港灣竣成을볼三年째에는 無煙炭開發과化學工業의 營運轉에 入할豫定이라고

"麥酒釀造"
昨年百萬石
朝鮮은三萬石

【東京電話商通】昨年十二月의麥酒釀造查定高는 다음과가트다 (以下單位石)

大日本	一九、二六四
麒麟	九、八二九
櫻	一、二四七
東京	六一
合計	三〇、四〇一

昨年全通한 累計는 다음과갓다

大日本	六五五、二六九
麒麟	三〇一、五七一
櫻	八四、六三七
東京	八、三七六
合計	一、〇四九、八五三

九十七萬石에 比하야 七萬石增加로 再昨年新記錄百萬石을 四萬石도 超過하야 朝鮮의釀造高三萬石을 加算하면 略百八萬石에 達하야 麥酒業界에잇서는 처음되는 新記錄을 나타내엇다

滿洲、中國 鑛山經營
東拓鑛業擴充案

東拓鑛業은昨年末 陣容의一新을 行하는同時에 新事業方針에對하야 東拓과折衝中이든바 具體案을得하야 十八日 田淵社長이 入京함을기대려 東拓과細目引繼를하고 實行에 移키로되엿다 卽 그事業의對象이 될것은 從來東拓鑛業課에서 取扱하야오던 鑛山關係事業을 一切引繼할것으로 이때문에 東拓의鑛業課는 同時에 廢止될터인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無煙炭合同會社의 持株는 全部出資金의一部로함
一、東拓의直營金山、永興、斗升 東興、栗浦의金山及 通川炭鑛을 引繼하야 經營함
一、東拓의金融關係가 잇던 廣長利仁等의金山을 管理함
一、傍系金山、金平金山은 그대로存續케하야 監理함

이外에同社는 事業地를 朝鮮만에限定치안코 滿洲、北中國의鑛山事業도 將來는 經營할計劃에 定款을變更하야 化學工業鑛山金融도 併行할豫定인데 이에依하야 東拓自體는 今後鑛山關係事業으로부터 一切손을떼이고 이것을傍系社인 東拓鑛業에 移하고저하는것이라한다

京城內氷合同
新會社來月創立
資本金은百萬圓

京城府內十二製氷業者의 合同은 假調印이 끗나고 이에伴하는新會社를 設立計畫中인데 十四日 志岐創立委員長이 京畿道警察部를 訪問하고 合同會社案에關한 內認可를 求키로되엇다 今月中에 發起人會를 열고 來月上旬創立總會를 열기로되엇스며 新會社는 資本金百萬圓、現物出資現金으로서 全額拂込케될것이라고한다

殖銀支店長會議

殖銀에서는 十八銀行의 九個所支店引繼에伴하야 十八銀行支店所在地의 支店長을 召集하고 引繼에伴하는 業務上의協議를 하엿는데 十四日로 안끗날때는 十五日도 續開할豫定이다 支店長會議出席者는 有賀頭取를비롯하야 各理事、各課長、仁川、釜山、元山、群山、木浦、榮山浦各支店長이라고

▲殖銀支店長異動‖殖產銀行에서는 白石釜山支店長의貯銀常務轉出에伴하는 支店長의 異動이 今月中間잇슬터인데 釜山支店長後任에는 林新義州 또는 三宅全州支店長說이잇다고 한다

東拓定期總會

東拓에서는 二月廿一日 東京本社에서 定期總會를 열기로 內定한바 그때 總會는 諸決算案뿐인데 그配當復活如何가 注目된다고 한다

東拓支店長會議

東拓에서는 昭和九年 開催以來 支店長會議를 昨年에 안열엇스나 今年은 三月中旬頃 全支店長會議를 本社로 招集하야 諸般의業務上 協議를하기로되엇다

米日爲替反落

【뉴욕十三日發同盟】十三日의 米日爲替는 休日前日에 比하면 賣二十九弗九仙으로 六仙低、買二十九弗六仙으로도 七仙低

經濟界消息

○郵便局長不逞異動‖遞信局에서는 通信事務의 膨脹에伴하야 地方局에 約三十名을 增員하고 또郵便所長缺員補充에伴하야 一、二局長의 轉出과同時에 不遠 異動이잇슬터이라고

商況【十四日】

株式 漸落步調 瓦落

前場低落 今前場은 賣物이 優勢하야 低落이엇스니 卽昨後引에比하야東新一圓四十錢低인百六十三圓九十錢 大新九十錢低인九十三圓七十錢 日產四十錢低인七十三圓三十錢朝新十錢高인三十七圓七十錢日魯六十錢에各大引되고 鐘新六十錢低인百四十九圓七十錢에떠러젓는데 東京短期東新은 百六十二圓十錢으로大引되어 暴落이엇다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百六十二圓丁、大新九十二圓六十錢、鐘新百四十八圓五十錢、日產七十三圓二十錢 朝新二十圓五十錢에 各續落落後不勢砲大引

下落의本코스 東新、新低價

東京短期東新은 昨年十一月七日의 百五十八圓二十錢으로부터 六十一、二圓의 揉合한 處를 上岐하야 同月二十五日의 百七十八圓丁에까지 約二十圓高를示하고 그로부터 約一個月間 百七十三圓中心으로 上下四五圓幅으로保合이엇다가 大納會直前에 失望의嫌氣投賣를하고 百六十圓臺로 떠러저 分岐되어 越年하고 大發會以來 鐘株高에 逆行하야 春高期待背馳의 投物도잇서 六十三圓丁의 低價를示하야 約二個月에 高價로부터十五圓低를 演코나서 十一日百六十六圓三十錢에까지 返하얏스나今前場은 百六十二圓十錢 新低價로떠러저 本格的下落코스에 入한觀이잇다。

百七十二、三圓 保合時 中野出動으로 마바라大衆이 큰市勢 期待로賣付하얏슴으로 取組는 二十四日人氣도 反對로 增加하야 十一萬五千株의大取組를 示코잇다 그리고 기장만히取組된것은 百七十二、三圓臺이로 日步를 加算하면 十三四圓損計算이 되여 正株도十萬株나賣繫되어잇슴으로 大小買方은 苦戰에陷해잇다。

地場人氣도 齋藤이나 中野가 다시買增할 모양이아니라하야 大下玉整理가 잇고야 말것이라보고잇다。

昨年高價에서 十五、六圓이나떠러젓스나 取組內容에는 顯著한 變化가 업는만큼 東新은 一層悲觀되는터인데 이제 賣方主力을 解剖해보면 齋藤側이 約五六萬、中野五萬가량으로 中野는 別問題이나 鐘新을 專制的으로 買煽해온 齋藤側의 態度가 注目된다한다。

東新除去코는 樂觀論도不無

東新가튼 特殊의것은 別問題로 치고 一般的으로는 如左히 樂觀論을 力說하는便이 업지안타다。
一、取組가 만흔듯하나 一般으로 把握力이 增大되어잇슴으로 걱정이 적다。
二、事業株는 優秀株는 新高이나 二流株는 買滿腹이 아니오 採算의 餘地가 잇슴으로 下値의 걱정이 업다。
三、賣株消化가 잘 되다。
四、財政膨脹의 好影響이 示現되다。
五、株券의 金融이 圓滑順調이다。
六、賣는 大部分 空賣임으로 低價는 買埋物이만타
等에依하야 根本은 亦是大勢樂觀論者가만흔모양인데 米國의平價切下로또爲替反轉마여이더라도 議會解散이나 軍縮會議決裂도 別로惡材料가아니되리라고보고잇는 모양이다

期米 伸惱이나 頑强

前場反落 昨後場阪地 三十二圓〇九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九十六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〇八錢인 一丁反落을 摒하고 二十九圓九十九錢인 反히三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〇八錢을最高로 稍漸低落하야 一圓九十三錢의最低로 場을止함을 伴하야八十六錢으로 反落止하엿다

後場更强 後場은 二十九圓八十八錢에 寄付 二丁高로 始場後九十八錢에 올르고 九十四錢에 弛하야 九十三錢에止하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商通】當限落의 市場은 場面閑散이나마 米貨는採算的賣氣旺盛으로 六分半一圓七十錢 五分半二圓의 昂騰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五三五
佛貨四分利 一八、七〇〇

實物株前場取引

▲金剛電鐵六一、六〇 ▲朝鮮新二六〇〇 ▲日本窒素新五六〇〇 ▲日滿아루미二七三〇 ▲人造肥料新四四〇〇 ▲東拓三七一〇 ▲三菱重工業八三二〇 ▲滿洲化學三九三〇 (取引高一〇〇枚)

市場六感

株 軍縮會議決裂樂觀、英國의滿洲國承認說、日英同盟說까지 流佈하야 東新은 百六十六圓三十錢(東新短期)까지 사보앗스나 웬걸 市勢는 下落의本코스에入할모양▲今朝前引은百六十二圓十錢으로 新低價 이왕이면 시원스럽게 펑펑떠러저서 四十三萬株의 큰 엉어리가좀 풀렷스면 ▲當分間株界는 조흔것은놉고 납분것은 떠러지는 凸凹時代가 압흐로도 繼續될것으로 보아둠이 大差가 업슬듯▲要는 東新에 所謂큰市勢란것은 解消되더이오 整理가徹底케되어야 만할모양▲軍縮會議決裂이면東新暴騰이라는 등에닷지안는 소리는 置之度外하시오

米 大體關門戰이란 兩方의要塞戰인만큼 거침업시 進軍되지못하는것은 依例히 잇는일이다▲그러한 關係로 三十二圓十錢까지 一擧棒上하든 阪地市勢가 今朝一圓九十錢臺로 突落▲此는 硬派도엽지안커니와軟派의 防戰도 엽지아니하야低落途程에 入한모양이다▲그러나 此는이러타할만한 軟材를 胚胎하지안코 仕手의關係에 依한것임으로 深入落은期待키難할모양▲何如間農家의態度가 一變하야 抑穀米를賣出하기外에는 可能할 低落이업슬것임으로 참아리 압북買가 得意▲그런데 產地農家의 消息을 據하면 日本內地의販賣에서는 賣惜은 姑息하고 更一步를 進하야 米의 思惑을計畫中이라하며 朝鮮에잇서서도 共同販賣組合으로부터 賣惜을 獎勵 又는平均賣를 實施하는光景▲內外共히 產地農家로서 中間商人化하는 모양이니 大體市勢는 實勢威壓으로 低落치못할것을 可期

今日財界(十四日)

◆米	(單位石)	
仁川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貸出	十一圓五十錢	一九四
預金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物	[illegible]	[illegible]

阪地는小抑코 當地는伸惱

阪地는昨後場三十二圓十錢의 高價를示한後 今朝에入하야는 二圓臺를維持키로하고 九十圓臺의反落을 告하엿스나 當地는意外頑强하야 依然九圓九十錢臺를 維持하고잇다 要하면阪地는 그동안十丁下押도엇시 一擧棒上으로六十丁의 反高를示한바만큼 此適의一押은市勢의呼吸上필요하다 當然한步調라 하야 買方의陣營은 아무런 不安을 안는다。그러한關係로由하야 阪地의低落에追從하지안코 當地市勢는 幾分軟味를 示하나 又後一段高價를 示할듯한形勢를 보이고 잇다 實로 米價의大勢를 參酌하여보면 大體昨年中의 大保合의 範圍를 脫出하여 保合으로 그保合圈內에는 들어가지안코 更히 昂騰途程에 入하기 에는 十當八九것임으로 참아리 押目買의 方針을取하는것이 得策이아닐가한다

生產者가思惑 實物去益稀薄

農家의 換金時期라 할수잇는 舊臘이 臨迫하엿슴에도 不拘하고 產地의 實物이 依然 稀薄하야 强調를 添한것은 要컨대 二個年 繼續凶作을 唯一한 强材로하야 實情不足하든 모양이다 日本內地의 共販聯合에서는 前年의小麥、菜種의販賣統制에 依하야 四百萬圓의 遊金을 生하여옴으로 此를 資金으로 米의思惑을 計畫하야 目下買付에 熱中한中인데 去十一月부터 十二萬二千六百十八叺의 累增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四萬千八百四十四叺의 增加를 示하고 朝鮮에 잇서서도 共同販賣組合 으로서 農家의 賣惜을 抱하는 一方으로 米價의 强調를 期하는 方針이다 果然此等配給機關의 方針이 何時에까지 强硬할지 此는 米界의 事情如何에 달아 方向轉換의 時機도 업지아니할것이나 그러나目前의 現狀으로보아서는 容易히 瓦解를 許지안흘것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illegible]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買方‖東京側 中谷乘換 田中貞 地場利喰
▲賣方‖潮政 櫻井某 岡米自己 朝鮮側乘換 高瀨側

各地正米

京城續高 期米의 氣味良好와 思惑側의 買進으로 市勢는 二十錢高唱인 丸仁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硬進 產地出廻 一巡과 思惑側의 買狙로 商勢底堅하야 唱은 二十錢儀進인 丸仁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釜山强堅 市場賣物 六千叺 小口換金賣物이 入하얏스나 移出側의 補充買와 이에따라精米向의原料買가잇서서 四千五百餘叺의 取引이成立되고 唱은五錢高인 角フ三等二十九圓三十五錢 四等二十九圓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六錢

大邱同調 갈이 益高으로買方이警戒의 度量增하고 季節的伸惱와 相俟하야 各地高에不伴코一息商狀인 角フ三等二十九圓 丁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續伸 市勢는 低떼하야 [illegible] 一等白米 [illegible]

木浦躍進 日本內地米 買收 [illegible] 減少後積으로 買物이 不收하고 市勢도 二十錢昂進되어 丸木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 [illegible] 等白米十二圓八十錢

株式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新鮮內各地期米(釜山、大邱、群山、木浦)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 [illegible]

金融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京城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 [illegible]

米穀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 [illegible]

商品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醬油沖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豆粕沖價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砂糖 ◆各地人絹 ◆橫濱生絲 ◆海外砂糖 ◆치카코期麥 ◆各地正租市勢 — [illegible]

金.銀.白金
代金引換販賣兼業 地方注文 料送先金 要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謹謝
賣買取多賞受領
壹等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益 康益夏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 長一二〇二番 長一一三四番 七六一番
電略(受)ジンセンカネマス (發)マス・マ(인)